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4904.66	코스닥	968.36
	(+63.92)		(+13.77)
금리 (국고채 5년)	3.130	환율 (원-달러)	1475.55
	(+0.050)		(+1.95)



홍라희, 2조 삼성전자 주식 처분 12조 ‘세기의 상속세’ 마무리 수순

삼성 오너일가, 6년 걸쳐 납부
홍 명예관장, 상속세 재원마련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하며 ‘세기의 상속’으로 불렸던 삼성 오너 일가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속 개시 이후 6년에 걸쳐 납부해 온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최근 삼성전자 보통주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증가 기준 금액은 약 2조원대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매각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처분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상속세 최종 납부를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는 그동안 보유 지분 매각과 금융 조달을 병행하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대규모 주식 매각이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각되는 만큼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실적 개선 전망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번 매각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는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후 이서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도 추가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가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회장은 상속 이후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이나 장내 매도로 처분한 사례가 없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1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개인 기준으로

는 삼성생명 지분도 약 10%대 초반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직접 보유 지분은 약 1.6%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고리다.

이 회장이 이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상속세 문제를 떠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전략적으로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은 지분 매각보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권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금 등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배당 기초 역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납부는 5년간 6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이다. 현재까지 5회차 납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이탈리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IMF, 韓 GDP 0.1%p 상향 경제 회복 기대감 ‘솔솔’

작년 추정치 1.0%, 올해전망 1.9%
日 전망 0.7%, 캐나다 1.6% 등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추정치와 2026년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p)씩 올렸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3개월 전)의 1.8% 전망에서 0.1%p 올려 잡은 수치다. 또 작년 성장률 추정치 역시 기존 0.9%에서 0.1%p 높은 1.0%를 제시했다.

게임·탄핵에 따른 혼돈을 추슬러야 했던 2025년이었지만, 내수 진작 등에 힘입어 1% 선은 지켜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어 2026년에 2%에 근접하는 본격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 세계 GDP가 작년과 올해 모두 3.3%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각 기존 추산·예측 대비 0.1%p, 0.2%p 상향 조정했다.

일본에 대해선 작년 1.1%, 올해 0.7% 성장을 예측했다. 미국 경제 추정·전망치로는 각각 2.1%와 2.4%를 제시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작년 1.4%, 올해 1.3%를 내놨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미국에 못 미치지만 캐나다(1.6%), 영국(1.3%), 독일(1.1%), 프랑스(1.0%), 이탈리아

(0.7%)를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 평균은 작년 1.7%, 올해 1.8%로 추산·예상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성장률 비교에서, 1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모두에 앞선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 1.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 시 IMF의 추정치인 2025년도 연간 성장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위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칩 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비롯해 여전히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가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스피 4900 질주 ‘오천피 임박’… 현대차, 지수 견인

KRX, 1.32% 오른 4904.66 마감
피지컬 AI 기대, 현대차 16% 급등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 고지를 밟았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 3위(98조원)에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다. 사상 첫 ‘15만전자’ (장 중)에 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증시를 떠받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32% 오른 4904.6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는 2019년 9월(13거래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긴 랠리다. 2006년 3~4월에도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코스피 5000까지는 95.34포인트(1.94%)쯤 남았다. 시장에선 “이제 코스피 5000선이 가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연초부터 지수를 끌어올린 반도체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대신, 자동차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현대차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대에 힘입어 16.22% 급등했다. 이날 시총은 98조2837원으로 늘어났다. LG에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순위 3위에 오른 것이다. 현대차의 강세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로봇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27% 오른 14만9300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15만전자’ (15만600원)를 터치했다. 2위 SK하이닉스는 1.06% 오른 76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으로 촉발된 미국·유럽 간 갈등의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국내 증

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에 2일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 부과)을 예고하고, 유럽이 반발해 정부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대서양 동맹’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 도달은) 1월에도 가능해 보인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내일이라도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이 최근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은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3조7000억원, 1조6000억원어치 팔았다.

내리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도 외국인인의 순매도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날보다 0.1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473.7에 마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홍준표 “공천현금 여전…지금 공천 제도로는 타파하기 어려워” 비판
▲박수현 “1인1표제 의결 서 최고위원 발언 막은 적 없다…오해 있다면 사과” /사진 뉴시스

▲친한파 김종혁, 중징계 놓고 국힘 당무감사위에 윤리감찰 요구 제출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 작업 무산…‘독립성 침해 우려’ 이유

▲한동훈 사과에 野 지도부 총돌…“진정성 없는 말장난” vs “동지의 언어 써야”
▲개혁신당 “李 대통령, ‘통일교·돈공천 쌍특검 요구’에 답해야”

정용진, 현장 광폭행보… ‘탐의 본성·패러다임 시프트’ 강조

(신세계그룹 회장)

정 회장, 연이어 스타필드 매장 찾아
트럼프 주니어 회동 등 글로벌 소통
“고객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가장 빠르고 바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현장을 찾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거침없는 ‘광폭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달 6일 이마트 매출 1위 점포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을 찾은 데 이어 불과 열흘 만인 16 일에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방문했다. 정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천명한 “2026년은 다시 성장하는 해”라는 비전을 책상이 아닌 고객이 있는 공간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회장의 연이은 현장 방문은 그가 신년사에서 주문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탐의 본성’과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천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의 결단은 재도약을 위한 준비였다”며 “이제 준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방문했다.

/신세계그룹

끝났으니 1등 기업의 본성을 회복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 시프트로 시장의 물을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첫 행선지로 매출 1위 점포 죽전점을 택한 것이 탐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행선지인 운정점은 유통업의 문법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 현장이라는 점에서 정 회장의 전략이 숨어 있다.

이달 6일 정 회장이 찾은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지난해 8월 ‘스타필드 DN A’를 이마트에 접목해 리뉴얼한 후 매출은 전년 대비 28%, 방문객 수는 22%나 급증하며 확실한 성과를 증명했다.

이날 오후 6시경 매장을 찾은 정 회장은 북그라운드, 그로서리 매장, 수산 코너 등을 꼼꼼히 살피며 “혼란스러운 유통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쇼핑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카트를 끌며 참다랑어회, 노브랜드 간편식 등을 구매하고, 직원들에게 “압도적 1등 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펼쳐달라”고 주문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죽전점 방문 열흘 뒤인 16일, 정 회장의 발걸음은 경기 파주의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으로 향했다. 이곳은 정 회장이 강조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결정체다. 기존 복합쇼핑몰이 차를 타고 멀리 찾아가는 곳이었다면, 빌리지 운정은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아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문 앞 복합쇼핑몰’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오픈한 이곳은 한 달여 만에 100만명이 방문했다. 방문객 중 70%가 인근 거주민일 정도로 지역 밀착형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재방문율 또한 40%에 달한다. 정 회장은 ‘센트럴 파드’와 ‘크레올라 익스피리언스’ 등을 둘러보며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객에게 더 나은 일상

을 선사하는 공간은 더 가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며 신세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의 시선은 국내 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회동하고, 백악관 과학정책실장과 면담하는 등 글로벌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방문은 플로리다 팜비치 개발 사업 참여 검토, 파라마운트와의 테마파크 콘텐츠 협업, AI 스타트업 ‘리플렉션AI’와 기술 협력 논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유통 현장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국내 오프라인 점포 공간 혁신에 최첨단 기술을 더해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계획으로 읽힌다.

정 회장은 “우리의 구상대로 2026년 함꼐 날아오려면 힘 없이 날갯짓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올해 대형마트 1등 점포로써 위상을 공고히 할 지 향후 관심이 주목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낸드플래시 가격 ‘들쭉’… 반도체기업, 추가 실적개선 기대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삼성·SK,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D램에서 낸드플래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주도해 온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낸드도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낸드의 실적 기여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달 보고서를 통해 낸드플래시 공급 업체들이 낸드플래시 제품군의 계약 가격을 33~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I의 추론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D램뿐 아니라,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낸드플래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더욱이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에 낸드 사용량을 최대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낸드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엔비디아가 낸드의 새로운 구매자로 떠오르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낸드의 평균구매단가(ASP,

GB당)는 지난해 4분기 0.086달러로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글로벌 낸드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고 ASP는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래시 메모리 하드웨어 생산업체 샌디스크가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낸드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샌디스크가 기업용 SSD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가격을 올해 1분기 중 전 분기 대비 100%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용 낸드플래시는 일반 소비자용 낸드플래시보다 수익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용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5.1%, 26.1%를 차지하며 양사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제품 가격 상승세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록 경신을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D램과 낸드가 각각의 연간 상승률을 각각 87%, 57%로 전망했으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324% 증가한 113조원 수준으로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낸드보다 D램이 큰 편이지만, 최근 낸드 가격 상승세는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낸드 가격은 개별 기업의 계약 가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는 쉽지 않다”면서도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변동 흐름에 맞춰 향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그린란드 내 위협 제거”

그린란드 병합시도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0년 동안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제 때가 왔다.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위협을 근거로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강행하면서 대서양 동맹엔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대응해 병력 파견에 나서자,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자로 해당 국가에 1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유럽 정상들은 단결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선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특별 무역 수단 ‘반(反)강압 수단(ACI)’을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ACI는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무역 수단으로, 무역 라이선스와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미국 서비스 기업엔 유럽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EU는 22일 정상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직 길어질수록 임금 감소”… 한은, 청년층 ‘상흔효과’ 확인

미취업 기간 1년 늘면 실질임금 6.7%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결합하면서 생애 전반의 소득·고용 안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면 현재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흔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 청년세대는 걸로 드러나는 고용지표와 달리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 장기화, 주거비 부담 확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은 지난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로 높아졌다. 한은은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와 고용 경직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확대,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기간 장기화가 생애 전반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파급도 제시됐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20~29세 기준 미취업 기간이 1년이면 5년 후 상용직 근무 확률이 66.1%였지만, 3년이면 56.2%, 5년이면 47.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미취업 기

간이 1년 증가할 때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층 독립·1인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소형 비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해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취약거처(고시원 등)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14㎡ 이하) 비중도 2023년 6.1%에서 2024년 8.2%로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

될 수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했고,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하락했다. 또한 청년층 부채비중(전체 연령 대비)은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높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는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로 봤다.

한은은 “고용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차 50만원 갈까봐 샀다”… 차포자도 뛰어든 ‘포모 장세’

〈자동차 투자포기〉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대차, 로봇·피지컬AI 기대에 질주
아틀라스 공개 등에 재평가 불붙어
시총 100조 눈앞 코스피 최고 행진
개인 1주일 9800억 순매수 불타기
지수 최고인데 내 종목 소외감 커져

“이러다 현차(현대자동차) 주가가 진짜 50만원 되면 배 아파서 어쩌나 싶어서 오늘 43만원에 샀어요.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원래 좀 갖고 있었는데, 가장 없는 내 수주 팔아서 ‘볼타기(오를 때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로 현대자동차 주가가 날아 올랐다.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바라보며, 단숨에 3위(98조2837억원)로 뛰어났다. 현대차가 있곤 코스피는 19일 4904.66에 마감했다.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이다. 코스피 5000선까지는 어느새 1.94%만 남았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자, 주가가 너무 급등해 반도체 주식 투자를 포기했거나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코스피는 사상 최고라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안 오르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식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호소하거나 “지금 사도 되느냐”고 묻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현대차그룹 미디어데이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공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나”고 묻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 ‘피지컬 AI’ 업고 달리는 현대차

지난해 76% 올라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들어 16%가 뛰어 주요국 중에서 압도적인 상승률 1위다. 코스피 상승의 일등 공신은 시가총액 쓰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1월 전반기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24.52%, SK하이닉스 주가는 17.36% 치솟았다.

후반기는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다. 상승률은 반도체보다 가파르다. 올해 들어

61.89% 뛰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29일 6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7일 70조원, 13일 8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100조원 돌파도 머지않았다. 증권가에선 최근 주가 급등의 촉매로 ‘로봇’을 꼽는다.

현대차와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반 공개한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구글 답마인드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글로벌 정보통신 전문매체이자 CES 공식 파트너인 C넷은 이번 CES 2026의 ‘베스트 로봇’으로 아틀라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로봇 전문 매체인 로봇스타트도 “현대차그룹이 가고자 하는 로봇 생태계는 인공지능(AI) 로봇의 대량 생산과 사회적 구현을 가능하게 해 기술 측면뿐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만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현대차가 발표한 ‘국내 125조원 투자 계획’ 중 71%(약 89조원)가 미래 신산업·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자율주행·로봇·SDV 등 ‘피지컬 AI’ 기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해외에서도 자동차·로봇·AI가 한데 묶이는 흐름이 뚜렷하다. 로이터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스스로를 ‘피지컬 AI 회사’로 규정하며 로보 택시·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을 함께 내놔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등도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통 완성차로 분류되던 현대차가 ‘로봇 모멘텀’을 갖춘 종목으로 재해석되며 목표 주가도 상승당되는 흐름이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로보틱스 가치를 반영하고 자율주행 전략 변화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한다”면서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구글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의 하드웨어 파트너사로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차·기아의 대량 생산 능력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생산공장의 행동 데이터셋(데이터 모음) 때문”이라며 현대차의 목표가를 65만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 거세지는 ‘포모’, 현대차에 몰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2일~19일) 동안 현대차를 9800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등 불타는 주가에 오히려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순매수 1위다. 올해들어 9일까지만 해도 개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현대차는 순매수 순위에 없었고, 1380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과거 현대차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가 몰렸던 날은 현대차 주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저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컸던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오를수록 순매수가 더욱 강하게 몰리고 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아직 못 산 이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둘러 매수 행렬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포모 장세의 모양새라는 게 여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금형 퇴직연금’ 임박… 수익률 개선 기대

노사정 TF 공감대… 이달 내 큰 틀 합의
적립금 459조, 77% 보장형 쏠림 저수익
전문가 운용 확대, 직접운용 선택권 유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자금 운용의 복잡함을 이유로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렸던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률 개선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운영될 전망으로,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도 개선 방향이 어느정도 제시된 만큼, 이달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형 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가입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적고, 안정성과 수익률도 양호하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이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운용수익률이 높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5000억원이다. 2024년 말의 431조7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약 278조원(6.4%) 늘었다. 업권에서는 오는 2050년부터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국민연금 적립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 적립금의 77.1%는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운용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 평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개인형 IRP 3.05%)다. 같은 기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 평균인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 보다 크게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적립금 대부분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퇴직연금 운용 시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상품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라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을 공공기관이 맡을 지, 민간 기관에 맡길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이 기금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존 운용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만큼, 기존 운용기관 사이에서도 기금형 도입을 사실상 확실시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서 “퇴직연금 시장은 장래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운용기관들도 기금형 도입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오픈AI, ‘최후의 수단’ 광고도입 꺼냈다 月 8달러 ‘챗GPT 고’ 글로벌 확대 출시

IPO 앞두고 수익화 전략 본격화
무료 비중 높아 광고로 매출 보장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월 8달러(약 1만5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고(Go)’를 전 세계로 확대 출시한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광고 도입을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고’를 출시하고 기존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 (월 20달러)의 절반 이하 가격에 제공한다.

챗GPT 고는 무료 버전보다 메시지 및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가 10배 높고 최신 모델인 ‘GPT-5.2 씽킹’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답변 과정에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광고는 멕시코 요리법을 물으면 핫소스 광고를 보여주는 식으로 대화 흐름에 맞춰 노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자존심을 굽히고 광고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구글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챗GPT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 8억 명을 돌파했으나, 무료 이용자 비중이 높아 수익성 개선이 더뎠다.

반면, 경쟁자인 구글은 최근 ‘제미니 3’를 출시하며 클라우드 용량을 묶어 파는 등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컴



오픈AI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퓨팅 파워 확충을 위해 자체 매출 확대가 절실한 오픈AI 입장에서 광고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서비스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오픈AI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내놔다.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이나 정치, 건강, 정신 건강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오픈AI는 최근 슬랙(Slack) CEO 출신인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과 협력해 기업용(B2B)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광고 도입과 저가 요금제 출시는 AI 기술 고도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고, 성장 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오픈AI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맛있고 건강한 한끼”… 저당·고단백, 일상식으로 자리잡다

건강을 파는 시대

〈中〉 생존전략 된 건강식품

식품업계의 경쟁 기준이 달라졌다. 당류·칼로리·단백질 함량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지가 제품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다. 저당 고추장부터 곤약밥, 제로 음료, 고단백 간편식까지 기업들은 제품을 출시하는 단계부터 ‘건강’을 전제로 설계하며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헬시플레이어 인식이 확산하고,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와 ‘기능성’이라는 키워드의 제품은 새로운 수의 카드로 떠올랐다.

실제 유통 현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올해 초 일주일간(2025년 12월29일~2026년 1월4일) 저당·제로 슈거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과거에도 건강 콘셉트 식품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낮은 맛과 높은 가격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체당과 식품 가공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 제품과의 맛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은 2018년 813억원에서 2023년 4500억원으로 5.5배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8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저당·제로슈거 매출 전년비 20%↑

식품·유통업계 新 성장동력 부상

혈당관리·영양균형 식사 인식 전환 단백질 음료, 일상 소비층으로 확대 저당 트렌드, 소스·장류까지 확산

◆ 일상부터 ‘건강한 밥’으로 채운다

초기 즉석밥이 ‘빠르고 간편한 식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혈당 관리와 영양 균형을 고려한 ‘매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국내 즉석밥 시장은 CJ제일제당 ‘햇반’이 약 70%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잡곡·곤약·저당 콘셉트를 중심으로 웰니스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며 ‘햇반의 집밥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선보인 ‘서리태 흑미밥’, ‘텐틸콩퀴노아 곤약밥’에 이어 2024년 11월 론칭한 ‘햇반 라이스플랜’은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hy는 잡곡 비율을 높인 ‘잇조은 오곡밥’을 출시했고, 오투기는 ‘가쁜한끼’ 브랜드를 통해 곤약밥 라인업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즉석밥이 더 이상 급할 때 먹는 간편식이 아니라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식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단백질 함량만큼은 높아야

단백질 시장의 성장세는 즉석밥보다 더 가파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은 2018년 813억원에서 2023년 4500억원으로 5.5배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8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운동 후 보충용으로 한정됐던 단백질 음료는 최근 체중 관리와 일상 영양 보충 수요까지 흡수하며 소비층이 크게 넓어졌다. 매일유업 ‘셀렉스’를 시작으로 일동후디스, 빙그레, 남양유업 등이 시장을 키웠고, 최근에는 CJ제일제당과 편의점 업계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백질 함량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20g대 제품 중심에서 40g 이상 고품질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단백질 음료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맛 구현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당·칼로리 빠니까 더 잘팔린다

저당 트렌드는 소스와 장류, 간편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등 대체 감미료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당류와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기존 맛을 유지한 제품이 늘고 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헬스앤웰니스 속성을 지닌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최대 300% 성장했다. 네이버에서 ‘저당 소스’ 검색량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상의 ‘로우태그(LOWTAG)’, 오투기의 ‘라이트앤조이(LIGHT&JOY)’, CU와 마이노멀의 저당 HMR 협업 등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서도 저당 제품 생산액은 지난해 20%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저당’ ‘제로’라는 설명이 붙으면 소비자가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며 “이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건강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 전 카테고리에서 당류와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과 기능성은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서울 ‘중고가’·경기 ‘고가’ 아파트 선택 몰려… 고강도 대출규제 영향

서울 아파트 중고가서 신고가 늘어 부담 덜한 가격대에서 거래 형성
경기도,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 거래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흔든 주요 변수는 대출 규제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중고가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가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지만 신고가를 기록하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당대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는 단지와 가격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연말로 갈수록 중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거래가격별로는 작년 1분기에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4분기에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 일정 수준의 대출을 전제로 하는 환경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며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요는 고가 구간보다는 부담이 덜한

가격대에서 거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면서 경기 지역 내에서도 신축이나 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작년 1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에 달할 정도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 역시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하반기로 가면서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인천은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하며 저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작년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

으며, 9억원 이상의 경우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강한 규제와 대출 제약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보다 각자의 여력에 맞는 선택지로 재정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섰고, 주춤했던 시장은 점차 적응 국면을 거치는 모습이다.

직방 관계자는 “2026년 역시 대출 환경과 자금 마련 여건이 단기간에 크게 완화된다고 보기는 현재와 유사한 제약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내 조선사, 美 해군 정비시장 공략… MSRA 자격 확보 속도

〈함정정비협약〉

HJ중공업, MSRA 체결 대상자 선정 SK오션플랜트, 항만보안평가 완료 삼성중·케이조선·대한조선도 준비

미국의 해군 전투함 정비시장 진입을 가르는 함정정비협약(MSRA)이 국내 조선업계의 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MSRA를 확보해야 전투함 등 고난도 함정의 정비·보수·개조(MRO)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조선사들은 보안·시

설·인력 요건을 갖추는 자격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 16일 미 해군으로부터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1년 1월 22일까지다. HJ중공업은 지난해 NAVSUP(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1차 현장실사와 2차 항만보안평가를 거쳐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MSRA 확보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MSRA 취득 최종 관문인 항만보안평가를 완료했으며, 후속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1분기 내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MSRA 취득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조선은 이달 ‘미래기술전략팀’을 신설해 체결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조선도 MSRA 추진 여부

를 검토 중이다.

MSRA는 미 해군이 부여하는 함정정비협약으로 취득 조선소는 전투함 등 주요 함정 MRO에 참여할 수 있다. 미 해군은 정비 물량의 55% 이상 자체 수행, 전용 부두 확보,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인증 드라이독 보유(또는 임차)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다. 인증은 NAVSUP 신청 접수 후 통상 8개월~1년이 소요되며 서류 심사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다만 MSRA 확보가 곧바로 전투함 MRO 수주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024년 7월 MSRA를 취득했지만 국내 조선소에 발주된 미 해군 MRO는 아직 군수지원함(USNS) 위주다. 미 해군 함정의 해외 정비를 제한하는 법·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데다, 전투체계 등 보안 민감 요소가 많아 해외 발주 확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 해군의 도크 부족과 정비적체가 커지면서 예외 적용 확대 가능성이 거론돼 업계는 MSRA를 전투함 MRO 개방 시 즉시 진입하기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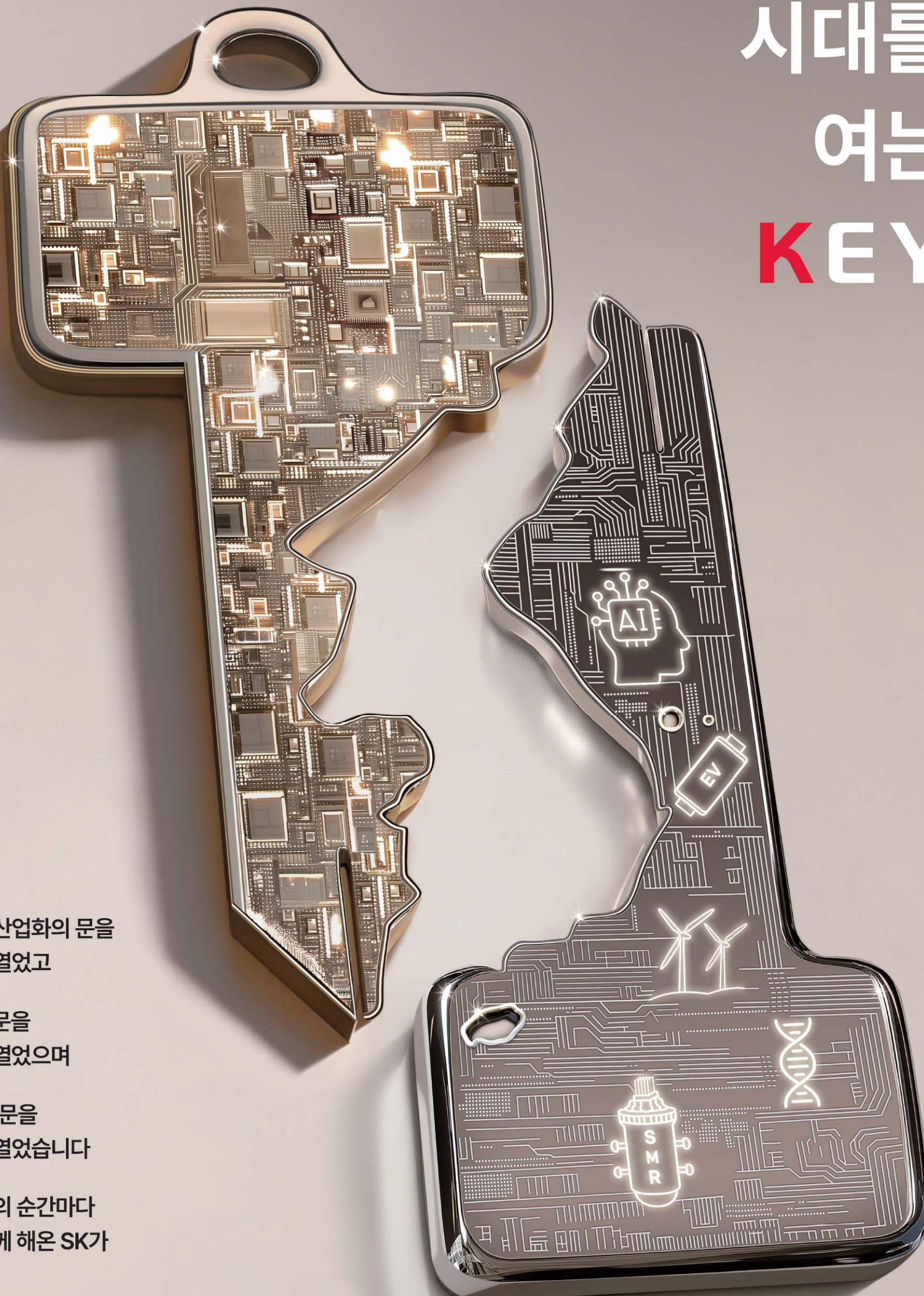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이혜훈 청문회 앉지도 못하고… 자료제출 부실 이유로 파행

재경위원장, 후보자 배석 허용 안해
국힘 “성실한 자료 제출, 개최 조건”
민주 “검증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다 정회됐다. /뉴시스

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

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전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 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 ‘당원 1인1표제’ 내달 중앙위에 부의

22~24일 당원 의견 수렴
최고위서 대립각 세우기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며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20:1’인 것을 ‘1:1’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후 2월2일 오전 10시부

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해당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2~24일에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도 1인1표제가 부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투표자의 72.65%가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최고위원과, 이미 총의가 모아졌다는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병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랫동안 아래 갭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물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단식 5일째 “첫 각오 꺾지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부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냐”라며 “장 대표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첨단제조업·미래기술 파트너십 강화

19년 만에 伊 총리 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9년 만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날 양 정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평가하며, 양국 경제의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제3국 시장에서의 교역과 투자도 증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반도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 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와 한국이 의장직을 수임 중인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의 틀 내에서 유

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협력의 주요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2026-2030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07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토대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물리학, 양자과학,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문화유산 점목 AI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8건의 공동연구가 착수된 점을 평가하고,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정과 공동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영화, 박물관, 공연예술, 건축, 관광 등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답페초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 · 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실적으로 본원 경쟁력 입증”… 지역별 기업영업 확대 나서

2026 카드사 생존전략

KB국민카드

김재관 사장 “그동안 축적한 역량 성과로 연결, 전환점의 해 삼을 것”
기업영업본부 등 신설 조직개편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전환점의 해로 삼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이 KB국민카드의 전환점이란 다짐이다.

◆ ‘본원 경쟁력’ 강화…실질 성과 집중
김 사장은 본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선택하고 책임지며 끝까지 실행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적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행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현장의 판단이 신속하게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

/KB국민카드

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업계 내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B국민카드는 ‘실적 수성’이란 과제에 당면했다.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를 현대카드가 맹추격하면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B국민카드(2817억원)와 현대카드(2550억원)의 연결 당기순이익 차이는 267억원에 불과했다. 당기순익 차가 약 1400억원에 달했던 지난 2024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 본업 내실 다지고 핵심 사업 ‘박차’

가장 먼저, KB국민카드는 본원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골자는 기업영업 확대. 기업영업그룹 아래에 ▲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원부를 신설해 기업영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기업영업본부 산하에는 우수기업영업부 4개와 기업영업부 14개를 신설, 지역별 기업 고객과 마케팅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김 사장은

“실행력과 현장 영업, 미래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시행했다”며 “고객과 맞닿아 있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 조직 전반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고객 분석과 상품, 디지털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 특허를 냈다. 디지털 자산과 신용카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결제 시 전자지갑 내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우선 적용된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처리된다.

한편, 디지털·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도 조직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9일 “KB국민카드는 디지털 기반 사업 추진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컴플러스 데이’ 개최

삼성화재는 지난 16일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 컴플러스 데이(Compl us Day)’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행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소비자정책팀, CISO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컴플라이언스’라는 부제로 운영됐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컴플라이언스는 안전한 성장을 가속하는 정교한 조타장치와 같다”며 “꾸준한 준법윤리 실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삼성화재의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생명

‘연금LAB’ 서비스 개시

삼성생명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연구하는 ‘연금LAB’ 서비스를 지난달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금LAB은 ‘Life And Balance’의 의미를 담아 연금을 통해 고객이 미래와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디지털 연금 분석 서비스다. 선별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연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LAB은 고객의 연령, 직업, 자금여력 등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알려준다. 만약 연말정산 시준인 연초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을 위해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제안하는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추천한다.



하나손해보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

하나손해보험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에 참여한 인천경보합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참여했다.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이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하나손해보험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38% ↑… 대여업체 의무보험 목소리

보험업계, 2024년 PM사고 2232건 정부, PM법에 공공보험 근거 포함 개인용 PM 약 30% 사각지대 우려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가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가 제도권 과제로 부상했다. 피해 보상 공백을 줄이려면 의무보험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개인용 PM 사각지대까지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어 최근 5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줄었지만, PM 사고는 399.3% 증가해 ‘역주행’ 양상이

뚜렷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PM 사고 비중은 0.2%에서 1.1%로 상승했다. 사고 원인 측면에서 PM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 증가세는 ‘규제 공백’ 논의로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마련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지자체 책무, 이용자·사업자 의무, 대여사업 운영체계 등을 포괄 규정하고 특히 대여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공공보험이나 보상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시 ‘무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장 공백을 줄이고, 사고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개인 PM보험 등 ‘조각난 보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공유 PM 비중이 큰 점도 의무보험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은 73.6%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 비중은 약 70%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의무보험이 ‘대여’에만 적용될 경우, 개인 소유 PM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용 PM 이용 사례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이나 본계약·특약 형태의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여용 PM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대여업체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대우건설, 7923억 사직4구역 재개발 수주

지상 39층 총 11개동 1730세대 규모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는 동래구의 교육 인프라와 대형 백화

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프루지오 그라니엘(PRUGIO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역사를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이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한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라인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크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AI 수어 상담 서비스’ 오픈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
“금융 사각지대 해소, 포용금융 실현”

카카오뱅크가 청각장애인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수어 상담’을 선택하거나, ‘AI 검색’창에 ‘수어 상담’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전용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가

장 익숙한 언어는 텍스트가 아닌 수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수어는 일반 국문과 문법 체계가 달라 텍스트 중심의 금융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접근성 혁신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포용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차량용 D램 안전성 입증… 사업확장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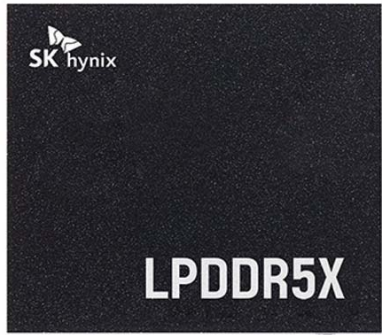
LPDDR5X ‘ASIL-D’ 획득
고성능·저전력·신뢰성 동시 충족
자율주행 분야 등 솔루션 제공

SK하이닉스가 최신 LPDDR5X 차량용 D램 제품으로 국제 안전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SK하이닉스는 LPDDR5X 차량용 D램 제품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 ISO 26262의 최고 안전 등급인 ASIL-D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ASIL-D는 인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 안전 등급으로, 글로벌 기능 안전 인증기관 TUV SUD가 개발 프로세스부터 제품 설계·검증·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SK하이닉스는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고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동시에 충족하며



SK하이닉스 LPDDR5X. /SK하이닉스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ASIL-D 인증을 획득한 LPDDR5X 차량용 D램 제품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차세대 자동차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고성능·저전력·고신뢰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해 차량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하는 메모리로서 경쟁력을 갖췄다.

TUV SUD는 이번 심사에서 LPDDR5X 제품의 기능 안전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 아키텍처 및 설계 개념 ▲오류 예방·탐지·진단 메커니즘 ▲개발 및 검증 프로세스 ▲품질 관리 체계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개발·검증·품질 프로세스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ASIL-D 인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솔루션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ASIL-D 인증을 추진한 배경에는 SDV·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있다. 최근 자동차 내 전기·전자 시스템 비중이 40%를 웃돌 정도로 전장화가 가속되면서, 시스템 신뢰성이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O 26262 기능 안전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ISO 26262는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으로, 차량 내 전기·전자 시스템 고장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8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며 중요성이 더욱 강화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차량용 메모리 사업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글로벌 완성차 고객이 제품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기능 안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차량용 메모리 사업 확대 및 고객 신뢰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글로비스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

현대글로비스가 선박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보유 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도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를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등 총 45척에 도입 완료할 예정이며 올 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통한 해운 디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활한 영상 스트리밍 시청과 가족과 영상 통화 등 선원들의 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은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해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순수 암모니아선 기술개발 등 탈탄소 전환 속도

암모니아 중심 무탄소 시대 대비 리튬이온전지 기반 ESS 개발도

한화오션이 암모니아를 비롯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복합 기술을 앞세워 탈탄소 선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료·추진 기술부터 전력 저장·운용까지 친환경 해양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무탄소 추진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선박추진동력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후를 대비한 무탄소 추진 기술을 암모니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지 않는 연료로 차세대 무탄소 연료 후보로 꼽히지만, 불에 잘 붙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연소 구현이 쉽지 않다는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다수의 선박용 암모니아 엔진은 소량의 화석연료를 섞는 혼소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혼소 비율이 낮더라도 탄소 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출은 발생한다.

한화오션은 순수 암모니아만으로 구동 가능한 가스터빈을 개발해 이를 적용한 암모니아 추진 선박 구현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상용화될 경우 추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선박 구현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202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연료 기술 외 영역에서도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3년 한화에너지와 페이스와 협력해 LNG선과 컨테이너선에 적용 가능한 메가와트시(MWh)급 리튬이온전지 기반 ESS를 개발하며 전력 저장·운용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과 정책이 강화되면서 선박의 연료와 추진 방식 전환은 조선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탄소 순배출을 ‘넷제로(Net Zer

o)’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제 논의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중장기적인 탈탄소 전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현재 친환경 연료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LNG는 기존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완전한 무탄소 연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에서는 LNG를 과도기적 연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후를 대비한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기반 선박 기술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조선 산업이 기본적인 건조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암모니아 등 차세대 무탄소 연료를 적용한 선박 기술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기술의 확보 속도와 완성도가 향후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타이어 BMW드라이빙센터 고성능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BMW 그룹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에 12년 연속으로 고성능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플래그십 타이어 브랜드 ‘벤투스’의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의 사계절용 SUV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 브랜드 ‘윈터 아이셉트’의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3 X’ 등 3종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 러시아 공장 ‘바이백 옵션’ 포기 수준

시장 복귀 시나리오 사실상 종료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거점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감안해 남겨뒀던 바이백 옵션마저 포기 수준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조건부 복귀 시나리오는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31일까지로 설정된 러시아 공장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옵션은 러시아

시장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생산 거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장치였으나, 전쟁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부에 완성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옛 제너럴모터스 공장도 인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와 부품 공급망 붕괴가 겹치며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현대차는 2023년 12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법인(HMM R) 지분 100%를 러시아 법인 아트파이

낸스(Art-Finance)에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매각가는 1만 루블(당시 약 14만원)로 상징적 수준이었으며, 현대차는 장부가 기준 약 2800억원대 손실을 반영했다.

러시아 공장 매각 절차는 2023년 12월 말 사실상 마무리됐고, 2024년 1월 2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후 아트파이낸스는 해당 공장을 AGR 체제로 편입했으며, AGR은 2024년 2월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고, 공장 명칭도 ‘AGR 자동차 공장’으로 바꿨다. 현재 해당 생산 자산은 모두 러시아 자동차 기업 소유로 넘어갔으며, AGR 자동차 그

룹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다만 매각 계약에는 2년 이내 공장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현대차그룹의 시장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나, 그마저 이달 이후에는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생산 시설과 별도로 러시아 내 상표권 관리도 이어왔지만, 생산 거점 바이백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 사업 재개는 상징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러시아 내 생산 거점 소유권이 러시아 측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글로벌 전략상 러시아 시장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티웨이항공 지난해 3.4만t 화물운송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화물 운송 실적 이 연간 3만4000t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실적인 약 1만8000t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성과가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 확장 ▲효율적인 화물 운송 전략 ▲탄력적인 공급 조절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화물 운송량 3만4000t 돌파는 티웨이항공이 화물 운송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화물 운송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CJ대한통운, ‘매일오네’ 도입 1년 생활소비재·식품 등 배송 늘었다

작년 분석 결과, 일요일 67% 증가
기저귀·유아용품 늘며 효과 ‘독특’
식품·특산물도 확대, 셀러 판로 넓혀

한진 합류로 주7일 배송 경쟁 본격
롯데글로벌로지스도 4일부터 시작

일요일까지 ‘주 7일 배송’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1년전 출시한 ‘매일오네(O-NE)’가 셀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휴일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일요일 미배송으로 어려움을 겪던 식품 셀러까지 ‘매일오네’를 통해 매출 안정화 효과를 거두며 셀러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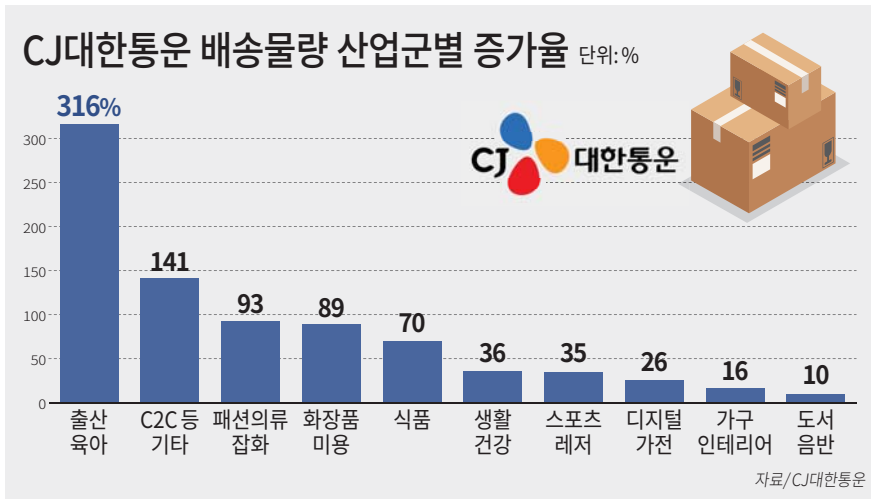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도 지난해 주 7일 배송에 뛰어든데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이달부터 7일 배송을 본격 시작했다.

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매일오네’ 도입 첫 해인 지난 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 물량이 연초와 비교해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종류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주말에도 상품 구매 요구가 큰 생활소비재를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먼저 출산·육아상품 배송물량이 316%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은 카테고리 특성상 ‘매일오네’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패션의류·잡화 상품군은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소유효과에 힘입



어 93% 늘었고, 화장품·미용 카테고리 가 89%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매일오네’ 도입 당시 주요 수혜 카테고리인 기대됐던 식품류 역시 물량이 70% 증가하며 휴일배송 효과를 입증하는 데 한몫했다.

과거에는 신선식품의 변질 우려로 주말·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돼 식품 셀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오네’ 도입으로 판매일수 확대뿐 아니라 재고 관리에도 도움을 얻게 됐다. 특히 식품 중에서도 지역 특산물 배송량은 연초 대비 138%나 늘어나 지역 농수산물 셀러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C2C) 택배가 포함된 기타 부문의 증가율이 140%를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9월 당근마켓과 손잡고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바로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C2C 택배를 강화해 온 점이 주효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전체 주말배송 물량을 상품 종류별로 구분하면 ▲패션의류·잡화 가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품류(21%) ▲생활·건강(17%) ▲화장품·미

용(11%) ▲도서·음반(8%) 순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큰 소비재 상품들의 주말 배송 비중이 높았다.

CJ대한통운 윤재승 오네(O-NE) 본부장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매일오네’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오네’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C2C 택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물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셀러·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빠르게 바뀌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익일배송 서비스를 1년전인 지난해 1월5일부터 휴일배송이 가능한 ‘매일오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별도의 물류 투자 없이도 364일 판매·배송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에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이달 4일부터 전국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공휴일 집·배송 업무를 시작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TX, 트롤리고 기반 친환경 배지 유통 진출

코코피트 그로우백 12만개 국내 공급
농업자재·농수산물 등 라인업 확대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디지털 B2B 무역플랫폼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친환경 시설원예용 배지 유통 사업에 나선다.

STX는 스리랑카산 시설원예용 배지의 첫 물량이 국내에 도착해 약 12만 개 규모의 코코넛 섬유 기반 재배 배지 ‘코코피트 그로우백’을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시설원에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STX가수입하는 친환경 코코피트배지는 코코넛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재배소재다. 시설원에 농가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때 사용되며 자연 분해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영국 본사와 스리랑카 생산기지를 둔 보타니코아가 생산한

제품으로, STX는 통관·물류 등 유통 전반을 담당하며 친환경 배지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STX는 트롤리고를 중심으로 빙어, 냉동 대왕오징어, 냉동 블루베리 등 농수산물과 유기질 비료 같은 농업자재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트롤리고 사이트 내 인기 아이템 상위권에 오르며 플랫폼 내 거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STX 관계자는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농업자재 분야에서의 거래 경험을 축적하며,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동시에, 트롤리고를 중심으로 농수산물과 농업자재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N32, TSS 전용 프레임 ‘마르피’ 선택

슈퍼싱글 2개 결합 가능한 구조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새해를 맞아 프레임 신제품 ‘마르피(Marfi)’ (사진)를 새로 선보였다.

19일 N32에 따르면 마르피는 N32가 처음 출시한 트윈슈퍼싱글(TSS) 사이즈 전용 프레임으로, 슈퍼싱글(SS) 매트리스 두 개를 하나의 프레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프레임을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한층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각자의 수면 습관과 취향, 그리고 체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수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독립수면을 선호하는 요즘 부부들에게 제격이다.

마르피의 헤드보드에는 일체형 쿠션이 적용돼 시각적인 편안함은 물론 기대었을 때 쿠션 주름의 폭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프레임 하단 측면부에도 스펀지와 솜을 더해 안전성까지 세심하



게 고려했다. 헤드보드 양 측면에는 USB-C 타입 듀얼 충전 포트가 각각 설치돼 스마트폰 등을 급속충전할 수 있다.

마르피는 국내 전동침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32 모션베드’와 호환도가 높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한쪽에만 모션베드를 둘 수도 있어 활용성 또한 우수하다.

색상은 웜그레이톤의 라이트그레이로 침실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연출하며 어떤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김승호 기자

LS전선,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A-’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넷제로·SBTi로 대응력 인정
탄소가격제·공급망 관리 강화

LS전선은 19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2025년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정보공개 및 평가 플랫폼으로, 기업의 기후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후 리스크·기회 대응, 공급망 참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CDP 등급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탄소 관리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요 발주처와 고객사들이 협력사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할 때 CDP 등급을 반영하는 만큼, 이번 리더십 등급 획득은 LS전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LS전선은 국내외 생



LS전선 동해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LS전선

산법인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검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획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LS전선은 향후 기후 대응 역량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내부 탄소소가격제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해 탄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공급망 실사와 협력사 교육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경환 LS전선 ESG경영전략부문장은 “CDP 리더십 등급 진입은 LS전선의 기후 전략과 실행력이 글로벌 기준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전력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혁신창업기업 보증·투자 연계 후속지원

기보, 벤처캠프 18기 참여기업 모집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서류·발표평가 거쳐 70개 내외 선발

기술보증기금이 ‘제1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발맞춰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보는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 ▲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글로벌 등 5개 분야의 특별전형을 운영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군

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전략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경험 및 성공 노하우 전수 ▲엑셀러레이터·VC·엔젤 투자 연계 및 VC 네트워킹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글로벌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ESG 전형 선정기업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천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기술·경영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후속지원도 연계해 혁신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올해 국내 게임업계 화두는 ‘콘솔’… 상반기 신작 쏟아진다

대형 IP 앞세운 콘솔 출시 줄지어
산업 차원의 방향 전환 평가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

2026년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K-콘솔 원년’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모바일·온라인 중심이던 국내 게임 산업이 콘솔 시장으로 집단 이동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대와 달리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콘솔 신작 출시와 글로벌 쇼케이스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대형 IP를 앞세운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모바일 이후 10년…콘솔로 방향 튼 이유**

국내 게임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과 브랜드 확장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콘솔이 다시 전략



펄어비스는 장기간 개발해온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의 3월 20일 출시를 예고했다. /펄어비스

무대로 떠올랐다. 글로벌 콘솔 시장은 여전히 북미·유럽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성공 시 IP 가치와 수익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은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올라 수익 예측이 어려워졌고, 콘솔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성공 시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콘솔을 피해서는 글로벌 게임사를 논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형사들, 올해 콘솔로 한꺼번에 몰린다

실제로 올해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나란히 콘솔 신작을 준비 중이다. 펄어비스는 장기간 개발해온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 출시를 오는 3월 20일 예고했다. 엔씨소프트는 신규 콘솔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온라인 MMO RPG 중심 전략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고,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역시 콘솔

기반 대작을 준비 중이다.

과거 일부 콘솔 타이틀이 있었지만, 이처럼 복수의 대형사가 같은 해 글로벌 콘솔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개별 회사 도전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점 효과’ 노리는 상반기 승부

눈에 띄는 점은 출시 시점이 대부분 상반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글로벌 콘솔 시장은 하반기에 북미·유럽 대형 타이틀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 국내 게임사들이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 한 연구원은 “한국 게임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보다, 글로벌 콘솔 시장의 빈 구간을 먼저 차지하려는 흐름”이라며 “초기 성과를 낸 기업이 이후 K-콘솔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콘솔 시장은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흥행 실패 시 손실 규모도 크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AA 콘솔 프로젝트(수

백만 장 판매를 목표로, 대규모 예산과 최신 기술을 투입해 개발되는 대작 콘솔 게임 프로젝트)가 출시 직후 성과를 내지 못해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K-콘솔 원년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성공 여부와는 별개 문제”라며 “올해 결과에 따라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전략 자체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 게임사가 모바일·온라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콘솔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첫 집단적 시도라는 점에서. 개별 흥행 성과를 넘어, 개발 기준·투자 판단·인력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2026년은 어느 회사가 성공하느냐보다, 한국 게임이 콘솔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집단 검증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결과가 향후 5년 전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NHN클라우드, 크래프톤 GPU 팜 구축

클러스터 최종 사업자 선정
인프라 확장·운영 효율 증대

NHN클라우드의 크래프톤의 ‘GPU 클러스터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형 GPU(GPUaaS)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래프톤이 지난해 10월 ‘AI 퍼스트’를 경영 핵심 전략으로 선언한 이후, AI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GPU 클러스터는 AI 플랫폼 고도화와 데이터 통합·자동화 등 중장기 AI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GPUaaS를 통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N클라우드의 이번 사업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 울트라’ 약 1000장으로 구성된 GPU 팜을 멀티 클러스터 구조로 구축한다. 여기에 XDR-800G급 초고속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적용해 GPU 간 대용량 데이터를 저지연·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GPU를 동시에 활용하는 환경에서도 데이터 병목을 줄이고, AI 모델 학습과 추론 작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GPU 자원을 여러 작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적 관리 구조를 적용한다. AI 개발, 학습, 추론 등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GPU 자원을 필요에 따라 배분·조정해 유휴 자원을 최소화하고 클러스터 활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방식은 소규모 AI 개발부터 대규모 LLM 학습까지 작업 규모와 특성에 맞춰 적용될 수 있다.

NHN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와 HPC 환경에 적합한 슬럼(Slurm) 기반 자원 관리 솔루션을 적용한 맞춤형 GPUaaS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연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AI 개발 도구와 외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개발 및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GPU인프라는 NHN클라우드 판교 NCC에 구축된다. 판교 NCC는 고집적 연산에 필요한 전력·냉각 인프라와 네트워크 환경을 갖춘 시설로, 대규모 AI 워크로드 처리에 적합하다. 인프라는 오는 7월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에어’ 100일 기념 100GB 드려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SK텔레콤의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가 출시 100일을 맞아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는 2025년 10월 13일 출시된 이후 합리적인 요금 구성과 포인트 혜택, 앱 중심 이용 환경을 앞세워 앱 회원 10만 명을 넘어섰다. 자급제 단말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에어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간편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다. 5G 데이터 구간을 단순화한 요금제와 앱 내 미션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

포인트는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샵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F&B 상품 등으



로 교환할 수 있다.

출시 100일을 기념해 2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00일 100GB를 100원에’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당 기간 에어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 시 추가 포인트가 제공돼 월정액 4만7000원의 5G 100GB 요금제를 첫 달 체감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되던 보너스팩 포인트에 시크릿 포인트를 더해 요금 부담을 낮춘 구성이다. 포인트는 요금 납부와 포인트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콘진원, 콘텐츠 인재양성 로드맵 공개

경력 단계에 맞춰 계획 수립

콘텐츠 업계 예비 창작자와 현업 종사자가 올해 자신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간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 것.

19일 콘진원은 ‘2026년 인재양성사업 교육운영 일정 통합공고’를 통해 총 15개 세부 사업의 교육생 모집 계획을 밝혔다. AI 활용 교육부터 글로벌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전 분야를 망라했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공고가 나뉘어 일정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연초에 1년 치 일정을

확인하고 경력 단계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핵심 신규 사업은 생성형 AI 교육이다. 콘진원은 ‘AI 특화콘텐츠 아카데미’에 79억 원을 투입해 1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비·미숙련 과정은 900명을 대상으로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한다. 전문·숙련 과정은 현업 종사자 100명을 선발해 실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교육생 모집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콘진원의 대표 인재양성 사업인 ‘창의인재동반사업’도 올해 97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만 19~34세 예비 창작자 300명을 선발해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한다. 작품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교육생 모집은 4월에 시작한다.

장르별 특화 인력 양성 사업도 산업 수요에 맞춰 세분화했다. OTT 방송영상 분야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현업 인력 1000명을 대상으로 기획과 후반작업 재교육을 진행한다. 웹툰 분야는 PD 트랙과 지역·소수정예 작가 트랙으로 나눠 총 140명을 선발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인재원’이 2월과 6월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한다. 흥륜 콘텐츠인재캠퍼스의 ‘뉴콘텐츠아카데미’는 AI 기반 융복합 콘텐츠 장기과정 2기와 3기를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챗GPT 포 카카오톡으로 ‘나만의 쵸르디’ 완성

카카오, AI 캐릭터 제작 서비스 선포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선보인다.

카카오는 19일 ‘챗GPT 포 카카오톡’ 서비스를 활용해 ‘나만의 쵸르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얼굴과 분위기 등 특징을 분석해 ‘쵸르디’ 스타일의 캐릭터 이미지로 자동 변환하는 방식이다.

쵸르디는 니니즈의 대표 캐릭터 죠르



카카오, ‘ChatGPT for Kakao’로 만드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모션. /카카오

디 세계관을 확장해 다양한 콘셉트로 재해석한 캐릭터 군단이다. 2024년 첫 공개 이후 카카오 캐릭터 라인업 가운데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다.

/최빛나 기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한도 늘리고 환헤지 방향 논의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위 열어
‘코스피 5000’ 위한 움직임 필요

원·달러 환율 1470원대 재진입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할 듯

코스피가 올해도 ‘불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 열고 운용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높이고, 고환율로 인한 전략적 환헤지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위를 개최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쯤 1차 회의가 소집되지만, 올해는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1월에 열렸다. 국내 주식 비중 상황과 환헤지 전략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부 모습.

/뉴시스

난해 14.9%였으나 중기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올해 14.4%로 더 낮아졌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규정에 따라 ‘±3%포인트’ 한도 내에서 비중 조정이 가능하다. 전술적 자산배분(TAA·±2%포인트) 이탈 허용 범위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19.4%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해

10월 말에 이미 18% 수준을 보였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적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코스피에서만 2조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은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

식 비중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며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올해 기금위 개최를 언급했다.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뛰면서 기금위가 전략적 환헤지 비율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미리 예상한 기준보다 환율이 급등할 때 보유한 달러 자산 일부를 매도(환헤지)해 환율 안정

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을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오르면서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당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이 필요했던 환헤지 실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환율 방어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서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운용, 연금자산 52조 돌파… 선두 자리매김

국내 첫 TDF·TIF로 연금펀드 개척
TDF 대표상품 누적수익률 136.3%
변동성 관리·수익률 균형 포트폴리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말 기준 TDF 등 연금펀드와 연금계좌내 ETF를 합산한 연금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연금자산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총 52조 638억원에 달한다. TDF,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연금계좌 내 ETF 등 주요 연금상품 관련 지표 전반에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TDF(타깃데이트펀드)와 TIF(타깃인컴펀드)를 선보이며 연금펀드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후 TDF의 장기 성과를 통해 실효성을 입증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 TDF의 설정액 대비 순자산은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가 2조 8427억, ‘미래에셋 ETF로 자산배분 TDF’는 3022



/미래에셋자산운용

억 증가해, 합산 3조 14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 상품인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136.3%, 연평균 15.5%를 기록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와 BF(Balanced Fund)를 중심으로 변동성 관리와 수익률 간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디

폴트옵션 전체 시장 규모는 5조 938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운용 규모 1조 7628억원으로 34.61%의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시장 내 ETF를 활용한 실적배당형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TIGER ETF는 상품 다양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를 바탕으로 연금 자금 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판매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된 TIGER ETF 순자산은 32조 8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조 2738억원 이상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계좌 내에서 ‘TIGER 200’, ‘TIGER 반도체TOP10’, ‘TIGER 조선TOP10’ 등 국내 주식형 ETF로의 투자도 확대되며, 기존 미국 대표지수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연금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M-ROBO’를 통해 연금 운용의 자동화

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M-ROBO’는 개인의 은퇴 시점과 투자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운용을 제공하며,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출시 이후 운용규모는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6년 4월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TDF, ETF, 디폴트옵션, AI 로보어드바이저를 아우르는 연금 상품·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연금을 단기 성과 중심의 금융상품이 아닌,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바라본 결과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성태경 대표는 “연금자산 50조원 돌파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축적된 장기 운용 성과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 수익률 중심의 연금 솔루션을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성장을 지원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DC 퇴직연금 적립금 전 업권 규모 1위

미래에셋증권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전 업권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 적립금은 전 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약 16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 업권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연간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DC 시장 유입 금액의 약 19.12%인 4조 4159억원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됐다. 2024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 적립금 규모는 약 11조 9000억원으로 4위 수준이었다. DC 제도는 운용 성과가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운용 역량과 관리 체계가 핵심 경쟁력이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국내 채권혼합형 ETF 수익률 1·2위 차지

200미국채혼합·삼성전자채권혼합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미국채혼합과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이 전체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수익률 1, 2위에 올랐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이 1년 수익률 42.2%를 기록하며,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지수에 40%, 미국채 10년물에 60%에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지수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6개월 수익률 28.8%, 3개월 수익률 14.7%를 기록하며 이 구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도 1년 수익률 39.0%를 기록하며 전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2위에 올랐다. 반도체 대장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를 30%까지 편입하며 국고채 3년에 70% 비중으로 투자한다. 국내 상장 주식 단일 종목과 채권을 혼합한 유일한 ETF다. 3개월 수익률 13.2%, 6개월 27.7%로 KODEX 200미국채혼합 뒤를 이었다.

KODEX 200미국채혼합과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의 지난해 합산 개인 순매수는 420억원, 은행은 4032억원의 순매수가 유입됐다. 현재 KODEX 200미국채혼합의 순자산은 8166억원,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의 순자산은 4054억원으로 두 ETF의 합산 순자산 총

액은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만큼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연금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두 ETF는 채권혼합형 ETF의 가장 큰 목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제어’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국내 주식에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채권을 혼합해 운용했을 때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란 평가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주식 혼합형 ETF 2종은 국내



/삼성자산운용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한양증권 임직원 연금저축 계좌 지수추종 ETF 최다비중

한양증권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위탁 계좌 서비스 출시 이후 임직원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투자 가운데 국내의 지수 추종 ETF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ETF 투자 비중을 보면 지수 추종 ETF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종·테마 ETF가 35%, 배당형 ETF가 16%로 뒤를 이었다.

지수 추종 ETF(40%)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지수 추종 ETF가 28%, 국내 지수 추종 ETF가 12%로 집계됐다. 시장 전체 흐름을 추종하는 지수형 ETF가 연금저축 자산에서 기본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가구당 28만원 아꼈다

가스공 반년간 1만7729가구 혜택
복잡한 절차에 놓친 취약계층 발굴
대구 본사 기반 전담 콜센터 운영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경감 혜택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은 가구가 반년 만에 1만7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당 연평균 절감액은 약 28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쳤던 취약계층을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받았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친 뒤 지자체·도

시·시각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1만8825가구를 파

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1만 7000여 가구가 실제 요금 경감으로 연결됐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절감액은 27만9330원으로,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는 184만 가구다.

한 독립유공자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 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구 본사를 기반으로 지역번호 053을 사용

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오해하지 말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고,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표 사례로 뽑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나선 사례"라며 "향후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AI 전환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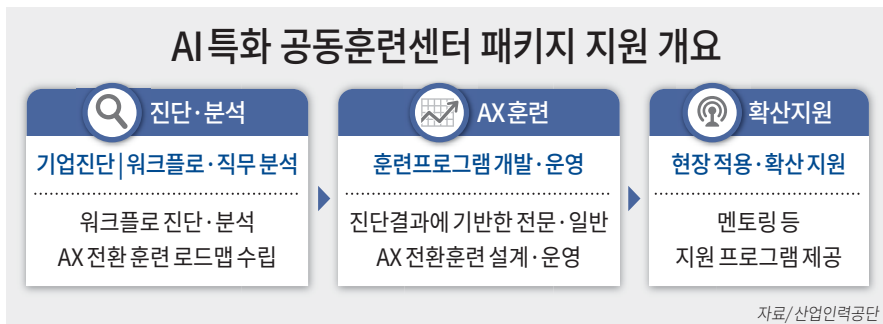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 선정
진단·현장적용 등 맞춤 패키지 제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현장 활용'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단위 거점 육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규 선정해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모델을 기반으로,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AI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AI'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



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진단·훈련·확산'의 3단계 패키지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 준비 수준과 업무 병목을 진단하고, 기업 맞춤형 AI 훈련 로드맵을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대표이사(CEO)를 대상으로 한 인사이드 교육(일반 AX)과 실무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전문 AX)이 병행된다. 실무 훈련은 최소 18시간 이상 실습 위주로 구성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훈련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가 현

장을 밀착 지원하며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AI 전환 성과를 확산시킨다.

공단은 수도권·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분포를 고려해 20곳 내외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 및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되며,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도 제공된다. 훈련비 역시 기존 대비 최대 300% 수준의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책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제주대와 그린수소 상용화 협력

업무협약 맺고 초격차 기술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를 거점으로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한수원은 19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와 그린수소 초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용량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사업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제주 2035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력 과제 추진 등에 공동 대

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사업 경험을 축적해왔다. 2022년부터 부안 2.5MW, 제주 10.9MW 규모의 상용급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 지역에 그린수소 통합제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고도화된 수전해 운전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한수원은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그린수소 생태계를 제주에 구현하고, 향후 국내외 그린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그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19일 제주대학교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그린수소 초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린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적합한 그린수소 생산지인 제주에서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그린수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산물, 아이디어 만나면 충분한 경쟁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 창업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정부가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내 창업을 적극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소재의 '미원산골마을빵집'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원면 산골마을빵 사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창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역의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속편한빵, 건강한빵'으로 입소문을 탔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우리 밀과 쌀을 주재료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르는 전 과정을 둘러봤다. 제품 생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밀과 쌀을 사용해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연매출이 2020년 5000만원에서 2025년에 5억원으로 늘어났다. 매출 증가는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졌고 주민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했다.

김희상 미원산골마을빵 대표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창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양환경공단, 재활용 '국제인증 2종' 획득

고품질 원료 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인증)'와 'OBP(해양유입 플라스틱)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일에서 주관하는 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됐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주관의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

는 제도다.

이번 2종의 인증은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향선 및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술)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부산 “해양반도체 산업단지 육성”… 글로벌 30위권 목표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
조선·반도체 융합 협력 본격화
설계·생산 반도체, 실증·수요 조선
투자보조금·세제혜택 지원 확대

부산시는 19일 오후 대한민국 해양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성창용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SK키파운드리, 디비(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대표 및 임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부산을 ‘차세대 해양반도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조선·해양과 반도체 산업 간 연계를 통해 핵심



부산시청 전경.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국가 반도체 정책과 조선·해양 산업 전략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와 남부권 산업 혁신 전략, 조선·해양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해 대형 국책

사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영도 부스트벨트 ▲해운대 제2센텀 도심융합특구를 연계한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해양반도체 산업 단지(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30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시는 민간 주도의 차세대 해양반도체 공급망(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한다. 반도체 기업은 해양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및 전력반도체의 설계·생산을 담당하고, 조선기업은 국산 해양반도체의 수요처이자 양산 실증을 위한 가늠테(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국민성장펀드 유치·지원 ▲최대 3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기획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체 운

영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를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반도체 산업의 응용 분야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유망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양 분야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전력반도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적용 분야를 해양으로 확장하는 첫걸음이자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반도체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

전남도는 올해 총 2472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107개 축산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등 5대 전략 방향 아래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191억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원 등 14개 사업에 528억원을 들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유망·우수축제 12개 선정

경북도는 지난 16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쟁력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과 자생력 있는 축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콘텐츠 개발과 축제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우수 축제 2개, 우수축제 6개, 유망축제 6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축제로는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무역수지 239억달러 흑자

경남도는 지난해 연간 수출이 4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수입은 241억 9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해 연간 무역수지 239억 1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수출은 38억 5000만 달러, 수입은 22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2022년 10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무역 구조와 수출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주시

복합스포츠타운 공정 ‘순항’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안정적인 공정 속도를 보이며 전주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야구장 건립사업을 포함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기존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중심으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카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전주(전북)=김명수 기자 qunms@

경주,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용자 확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으로 한도 ↑

경주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민 복지용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부터 주민 복지용자 사업의 가구당 용자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용자 사업에는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갑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등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용자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를 유

지해 주민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고, 2년 거주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 복지용자금은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용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이번 용자 한도 확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사업체 52곳에 총 9억 9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창원, 청년 공영자전거 ‘누비자’ 요금 지원

오늘부터 1350명 선착순 모집

창원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135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2024~2025년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

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는 매일 신청자격을 검토해 익월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일부터 누비자 연회원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전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

울진군이 군민 대상 재난 피해 보장을 강화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총 1억 원 한도의 전국 최고 수준 보장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모든 울진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화상수술비, 농기계사

고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 항목을 포함한다. 단, 야생동물 관련 보상은 울진군 관내 사고에 한정된다.

보장 항목은 총 36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항목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소 보장 금액은 10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울진군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영덕군, 생애주기 맞춤 인구정책 총정리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영덕군이 군민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2026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올해는 신규 정책 20건이 추가돼 총 104개 사업이 수록됐다.

군은 임신과 출산, 청년기, 노후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정리한 ‘2026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책자에는 총 7개 분야, 104개 정책이 수록됐다.

분야는 ▲전임·결혼·군민 ▲임신·출산 ▲보육·교육 ▲다자녀 ▲청년·주거

▲노후 ▲귀농·귀촌·귀어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20개 사업이 추가됐다. 군은 군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시기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문화센터 유아 놀이터와 전통시장 어린이 체험 공간 등 놀이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관 건립, 중·고등학교 대상 심화학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리턴투 영덕’ 청년창업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대상 주거 마련 비용 및 이사비 지원도 새롭게 담겼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할인 없어도 저렴하게”… 유통업계, 초저가·균일가로 승부

유통사 가격경쟁 전략 변화

이마트 생활용품 전문점 ‘와우샵’ 식료품 ‘오케이 프라이스’ 성장세
롯데마트, ‘외식 물가 잡기’ 초점
가격거품 뺀 피자·핫도그 판매 열풍
현대홈쇼핑, 이월상품 할인 ‘D숍’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 가격 경쟁 문법이 바뀌고 있다. 복잡한 할인 쿠폰이나 카드 제휴 혜택 대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고정가 중심 초저가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홈쇼핑 등 주요 유통사들은 1000원대 핫도그부터 9900원 의류까지



이마트 왕십리점에 위치한 와우샵 모습.

/이마트

가격 상한선을 미리 정해둔 전용 코너와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생활용품과 식료품 영역을 나눠 구조적인 초저가 실험에 나섰다.

생활용품 전문점인 ‘와우샵’은 이마트가 직접 기획·소싱한 1300여종의 비식품 상품을 판매한다. 전체 상품의 86%가 3000원 이하, 64%가 2000원 이하로 구

성대 ‘다이소’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왕십리점 등 4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와우샵은 지난달 오픈 이후 일평균 매출이 목표치 대비 최대 3배를 웃돌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특히 옷걸이, 수납함 등 홈퍼니싱 제품과 주방용품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식료품 분야에서는 5000원이라는 가격 상한선을 둔 자체브랜드(PL) ‘오케이 프라이스(5KPRICE)’가 선전 중이다. 기존 PL 상품 대비 용량을 25~50% 줄이는 대신 가격을 5000원 미만으로 묶어 장보기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오케이 프라이스는 지난해 4분기 매달 4~5%씩 매출이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외식 물가 잡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5일부터 전 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68피자(6800원)’와 ‘15핫도

그(1500원)’가 주인공이다. 원재료 대량 매입과 조리 공정 단순화를 통해 가격 거품을 뺐다.

전략은 적중했다. 출시 나흘 만에 피자와 핫도그 판매량이 4만5000개를 돌파했고, 해당 상품군인 ‘콜드델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뛰었다. 온라인 주문을 병행해 폐기율을 낮춘 점도 수익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홈쇼핑 업계도 ‘균일가’ 대열에 합류했다. 현대홈쇼핑은 패션 이월 상품을 최저 9900원부터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관 ‘D숍’을 론칭했다. 백화점 아울렛의 온라인 버전인 셈으로, 최초 판매가 대비 평균 70% 저렴하다. 현대홈쇼핑은 4050 핵심 고객층을 묶어두는 동시에 가격 민감도가 높은 2030 세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단독산지·신품종으로 신선식품 차별화”

롯데마트, ‘과일 차별화 전략’ 가동
밀양 얼음골 사과, 안정적 물량 확보
제주 우리향, 핑크캔디 등 신품종 도입

롯데마트가 단독 산지 확보와 신품종 라인업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과일 차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단독 산지 상품을 운영한다. 올해는 ‘밀양 얼음골 사과’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밀양 얼음골 사과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식감과 당도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감소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지만, 롯데마트는 밀양농협과의 선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신품종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롯데마트는 지난 연말 대형마트 최초로 ‘제주



롯데마트가 밀양 얼음골 사과, 제주 우리향, 그린시스 배 등 다양한 과일을 선보인다.

/롯데마트

우리향’을 준비했다. 황금향과 레드향을 교배한 이 품종은 일반적인 만감류와 달리 껍질이 얇아 굴처럼 쉽게 까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해 연녹색 겹질과 산뜻한 산미가 특징인 ‘그린시스 배’도 운영하며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 구색도 대폭 강화했다. 이달 들어 ‘핑크캔디’, ‘아리향’ 등 신품종 4종을 추가해 총 11개 품종의 딸기 라인업을 완성했다. 블루베리 역시 여름철 인기 품종인 ‘슈퍼크런치’와 유사한 아삭한 식감을 가진 칠레산 신품종 ‘세코야 블루베리’를 도입해 동절기 과일 경쟁력을 높였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免, 디저트로 소비 트렌드 전환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매출 30배 ↑

신세계면세점이 식품 큐레이션 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오픈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을 30배 끌어올리며 면세점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명동점에 문을 연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국내 중소·중견 디저트 및 식품 브랜드를 엄선해 선보이는 공간이다. 오픈 전후 6개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품 구매 고객 수는 4배, 매출은 30배 급증했다. 또한 식품과 함께 화장품, 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 비중도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화장품과 주류 중심이었던 면세 쇼핑 수요가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경험형 디저트와 선물용 식품으로 확장된 결과로 풀이된다.

매출 상위권은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파말차,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 국내 브랜드가 휩쓸었다. 특히 203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위치한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

/신세계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끈 ‘브릭샌드’는 명동점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에 추가 입점했다. 브릭샌드는 이달 신제품 ‘불닭 맛’을 출시했으며 향후 공항 단독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단순한 매장이 아닌 지속 성장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브랜드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오뚜기, 美 팬시 푸드쇼서 ‘치즈라면’ 알려

‘보들보들 치즈라면’ 기반 기획 제품
현지 입맛 반영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오뚜기가 치즈라면을 앞세워 미주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뚜기는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6 윈터 팬시 푸드쇼(Winter Fancy Fair)’에 참가해 치즈라면(cheesy ramen)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대규모 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오뚜기는 대형 리테일러와 코걸 유통사, 브로커 등 총 105곳과 미팅을 진행하며 미주 시장 내 수요를 점검했다.

오뚜기가 전면에 내세운 제품은 지난해 리브랜딩을 거쳐 라인업을 확대한 치즈라면이다. 미국 내 치즈 소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체다, 스와이스 등 현지 입맛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치즈라면은 오뚜기의 스테디셀러 ‘보들보들 치즈라면’을 기반으로 미주 소비자를 타겟으로 기획된 제품이다. 국물 라면 2종과 볶음 라면 2종 등 총 4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용기면과 봉지면을 포함해 8종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치즈와라면의 결합’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맛과 품질, 패키지 디자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패키지에는 밝은 색감을 적용하고 치즈를 형상화한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해 현지 소비자 친화성을 높였다.

단순한 수출용 제품이 아닌, 현지 시장에 맞춘 브랜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오뚜기는 전시회 참가와 함께 미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로드쇼와 시식 행사도 병행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2026 윈터 팬시 푸드쇼 오뚜기 부스에서 치즈라면을 셰프가 조리하는 모습.

/오뚜기

통해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도 강화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미주 시장에서 치즈라면을 중심으로 오뚜기 라면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팬시 푸드쇼를 계기로 현지 유통 파트너와 협업을 확대해 판매 채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 할인으로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SSG닷컴, 올리버드 기획전 진행

SSG닷컴이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설 선물 올리버드 혜택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통조림, 한과 등 가공 및 건강식품 카테고리 상품에 적용 가능한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ID당 2장씩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적립 혜택도 강화했다. 행사 기간 중 명절 상품을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상 구매하고 적립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

액에 따라 2만원, 6만원, 15만원의 SSG 머니를 지급한다.

아울러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선물 사전예약 프로모션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행사 카드로 이마트물과 신세계물 선물세트를 결제할 경우 최대 150만원, 신세계백화점물 상품은 최대 40만원까지 SSG머니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CJ 스텝 세트, 데체코유기농 오일 세트 등 일부 인기 품목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SSG닷컴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풍성한 사전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며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간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백신개발·글로벌CDMO 투트랙… SK바사, 성장로드맵 가속

송도 R&PD 가동, 연구·공정 원스톱 mRNA·재조합·벡터 플랫폼 강화 독감·폐렴구균 프리미엄 다변화 사노피와 ‘GBP410’ 공동개발 IDT 연계 CDMO 확장 추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를 양축으로 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백신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글로벌 생산·개발 파트너로의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선 백신개발 영역을 플랫폼 기반 연구로 확대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인천 송도 ‘글로벌 R&PD 센터’로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완료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글로벌 R&PD 센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토지 매입, 건축, 설비 구축 등에 총 3772억원을 투입해 신규 조성한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백신 전용 시설이다. 연구(R&D)부터 공정개발(PD), 품질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전경.

/SK바이오사이언스

분석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 무엇보다 mRNA, 단백질 재조합, 바이럴 벡터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를 위한 전문 실험실 등을 설치해 다양한 백신 모델링에 대한 연구와 공정 검증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 수준의 파일럿 랩(Pilot Lab)

도 마련했다. 초기 플랫폼 연구부터 공정 설계, 스케일업, 기술 검증 및 이전까지 전체 과정을 단일 공간에서 완성해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경북 안동 엘 하우스(LHOUSE)에서 일부 병행해야 했던 연구 공정도 통합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기반으로 독감뿐 아니라 폐렴구균 등 다양한 질환에서 ‘프리미엄 백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면역증강제를 활용한 독감 백신 개발에 착수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서 광범위하게 예방효과를 보이는 범용 백신을 탐색하고 있다. 또 빅파마 사노피와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후보물질 ‘GBP410’을 공동 개발하는 등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도 글로벌 R&PD 센터는 향후 자회사 IDT 바이오로지카와도 연계되면서 핵심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독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해 유럽 거점으로 삼으며 양사 사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에서 IDT 바이오로지카를 통한 CDMO 매출은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는 수준으

로 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CDMO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송도 글로벌 R&PD 센터는 글로벌 라이제이션 전략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라이제이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핵심 과제로, 백신 수요는 높지만 연구·생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 백신 연구 및 생산 노하우를 이식하는 프로젝트다. 송도 글로벌 R&PD 센터는 연구, 공정, 사업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만큼, 글로벌 협력 기회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입주는 단순한 사옥 이전을 넘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 공간을 기반으로 연구와 공정, 글로벌 협력이 하나의 성장 구조로 연결되면서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보험 혜택 더 늘었다

시그나 계열 에버노스 ‘ 선호’ 등재 미국 환급 커버리지 90% 확보 월평균 처방 31% 성장, 기관 급증

셀트리온이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 SC 미국 제품명)가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나 그룹’ 산하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 ‘에버노스 헬스 서비스’ 처방집에 선호의약품(pREFERRED)으로 등재됐다.

시그나는 미국 내 대표적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3대 처방약급여관리 업체(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 보험 업계 상위 10대 기

업에 속하는 ‘시그나 헬스케어’(Cigna Healthcare) 등을 운영하며 의료 시장 전반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꼽힌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짐펜트라 출시 이후 ESI와 계약을 체결해 선호의약품으로 등재시킨 바 있다. 이번 에버노스 등재는 이러한 성과의 연장선으로, 향후 시그나 계열 보험 가입자는 의약품 처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짐펜트라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됨과 동시에 의사 처방 선호도도 높아지는 만큼, 판매 확대

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짐펜τρα는 2024년 미국에 처음 출시된 이후 월평균 31%의 처방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 분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기준 병원 등 기관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짐펜트라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3대 PBM을 비롯해 중소형 PBM, 보험사 등 주요 환급 채널과 등재 계약을 체결한 성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짐펜τρα는 미국 환급 시장 커버리지를 90% 이

상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짐펜트라뿐 아니라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렉트라’(렘시마 미국 제품명) 역시 미국 대형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처방집(사보험)에 등재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와는 다르게 인플렉트라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돼 처방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다는 점이다. 인플렉트라 처방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는 2월 1일부터 환급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브리세 ‘레벳팅 틴트 필름’

/HLB글로벌

HLB글로벌

‘브리세’ 구강뷰티 첫선 허 틴트필름 2만장 돌파

HLB글로벌은 신규 구강 뷰티 브랜드 ‘브리세’를 공개한 후 브랜드 첫 번째 제품인 ‘레벳팅 틴트 필름’이 출시 일주일 만에 2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레벳팅 틴트 필름은 국내 최초 ‘허 틴트 필름’ 제품으로 구취 관리와 백태 제거 효과를 갖췄다.

브로멜라인S, 녹차추출물, 아스퍼질러스 유래 효소 등을 함유해 백태를 발생시키는 세균을 억제하고 허 위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분해한다. 또 강력한 민트 에센스를 처방해 7초 만에 입냄새를 없앤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기다림 침향’ 매출 200억 흥행

출시 1년 8개월 만에 성장세 탄력

정관장의 침향 전문 브랜드 ‘기다림 침향’이 출시 1년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다. 홍삼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녹용·침향 등 신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온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정관장에 따르면 ‘기다림 침향’은 지난해 4월 말 출시 후 1년 3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후 5개월 만에 추가로 100억 원을 더하며 200억 원 고지를 넘어섰다. 주력 제품인 100% 침향 순수 달임액 ‘기다림 침향액’이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침향에 지황·맥문동·사인·영지·당귀·백출 등을 배합한 한 제품 ‘기다림 침향환’은 9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명절 수요도 실적 확대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추석 시즌 매출은 전년 대비



정관장 기다림 침향.

/KGC인삼공사

3.7배 증가했으며, 재구매율 역시 33% 상승해 충성 고객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해 생성하는 수지 성분으로 응집까지 약 20년이 소요되는 희소 원료다. 용연향, 사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건강빵 인기 ‘쑥’

11개월 만에 2026만개 판매 돌파

파리바게뜨의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 ‘파란라벨(PARAN LABEL)’이 출시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26만 개를 돌파했다.

파란라벨은 지난해 2월 출시된 건강빵 브랜드로 파리바게뜨가 독자 개발한 통곡물 발효종을 적용해 풍미와 식감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건강빵 대비 약 5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단기간에 대표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저당·고단백·통곡물 등 건강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거친 식감을 개선해 ‘건강빵은 맛이 없다’는 인식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품별로는 ‘크래페리 호밀 감빠뉴’가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밀티그레인 호밀빵’, ‘쫄깃담백 루스틱’



파란라벨.

/파리바게뜨

등이 뒤를 이었다.

파리바게뜨는 파란라벨을 케이크·선물·음료 카테고리도 확장했다.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 ‘명가명품 고단백 서리데 카스테라’, ‘저당 요거트 셰이크’ 등은 기능성과 맛을 동시에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7억건 돌파

스타벅스 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론칭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이 7억 건을 돌파하며 이달 25일까지 별 적립 이벤트를 전개한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2014년 5월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주문 서비스로 현재 스타벅스 고객의 10명 중 4명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주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오더 이용 비중은 약 40%로 14곳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신원선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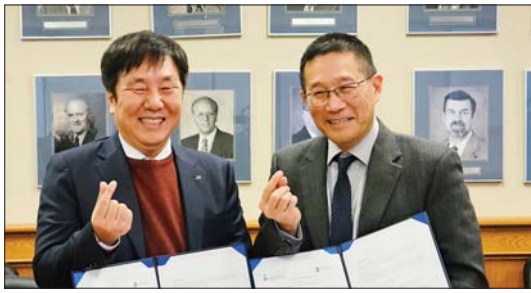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영남권 신년인사회… 600여명 참석

중기중앙회는 19일 부산광역시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영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중기중앙회



기정원, 토론토대학 등 북미 R&D 협력 확대

기정원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미국 렌슬러공과대학교와 지난 9일과 13일에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개방형 R&D 혁신 촉진한다. 김영신 기정원장(왼쪽)이 토론토대학교 Chris Yip 공과대학 학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이광희 SC제일은행장,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SC제일은행은 이광희은행장(가운데)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추천했다.

/SC제일은행



동아제약, 상주서 '메리 리틀 하모니' 공연

동아제약은 지난 17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 무대가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

아모레퍼시픽

마크 브래드포드 개인전 연장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3월 1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떠오르다(Float)' (2019), '폭풍이 몰려온다(Here Comes the Hurricane)' (2025) 등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간에 맞춰 제작된 대형 작품들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뮤지엄샵에서 전시도록 '마크 브래드포드: 킵 위킹'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 대표작, 다양한 전시 이미지 등을 수록해 전시 감상을 돕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 해외탐방 마무리

율리히 연구소 등 현장 체험… 미래 ‘노벨상’ 씨앗 심어

獨 연구기관 방문… 6박 8일 일정
과학문화 저변 확대·인재발굴 기여

한화그룹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 수상자 10명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의 우수 연구기관을 방문하며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1년 “젊은 노벨상 수상자를 양성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된 국내 최고 수준의 고등학생 대상 과학경진대회다. 지난 14년간 약 1만 800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며 과학문화 저변 확대와 미래 과학 인재 발굴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해외 탐방에는 2025년도 은상 이상 수상 5개 팀, 총 10명이 참여해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들이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대회 주제와 연계된 탐방 프로그램 속에서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일 연구기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율리히 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막스플랑크 고분자 연구소, 다름

슈타트 공과대학교, 베를린 공과대학교, 프라운호퍼 광통신 연구소, 포츠담 천체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하며 글로벌 연구 현장과 학습 환경을 체험했다.

대전대신고 오정근 학생은 “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

SK하이닉스, 대학생 앰버서더 모집

내달 8일까지… 7개월간 활동

SK하이닉스가 콘텐츠 제작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앰버서더를 찾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월 8일까지 ‘2026 대학생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은 앰버서더 모집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대학생 앰버서더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대학생의 시선에서 SK하이닉스의 기업 문화와 직무, 기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기업 스토리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학생 앰버서더는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미래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2026년에도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전, ‘적극행정 모범사례’ 국무총리 표창

감사실, AI·IT 기반 업무혁신 성과

한국전력은 감사실이 최근 AI·IT 기반 감사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 감사실은 AI·IT 신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감사실은 실제로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비적정 설계 감지, 이미지 재사용 감지 등 다수의 AI 기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감사자료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자료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점검해 분석 정확도를 크게 높였으며, 비적정 설계 의심 건 등을 자동 추출해 감사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에 활용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부음

▲김정자 씨 별세, 송훈상(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실장)·현상·봉숙·명숙·문숙

(경남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4시 4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02)3410-6902

▲정금순씨 별세, 송창대(우석대 산학협력단 토양오염분석센터장)씨 모친상 = 19일 오전 5시 20분, 전주고려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1일. 063-242-9944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중국본부에서 열린 한국엔컴퍼니그룹 ‘프로액티브 콘서트’ 현장.

한국엔컴퍼니, 해외거점 소통 강화

중국서 ‘프로액티브 콘서트’ 개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중국 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열어 글로벌 기업문화 프로그램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국타이어 중국본부에서 임직원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진행했다.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조현범 회장의 경영철학 ‘프로액티브 컬처’에 따른 타운홀미팅 형식의 사내 소통 프로젝트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한국엔컴퍼니를 포함해 한온시스템, 한국네트웍스, 한국엔지니어링웍스, 모델솔루

션 등 전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액티브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유럽본부와 북미 사업장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됐고, 이에 따라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해외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소통 프로그램 1.0’을 마쳤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올해부터 글로벌 사업장의 연구소, 공장, 해외 법인에서도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개최해 현장 임직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오윤정 프로액티브컬처팀장은 “콘서트 결과는 그룹 차원의 실행 성과 아카이브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라며 “임직원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내부 소통의 장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용정보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ESG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을 준수해 작성됐으며, 한국ESG경영개발원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장수 원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윤리·준법 경영과 정보보호 강화, 친환경 경·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국민·기업·지역사회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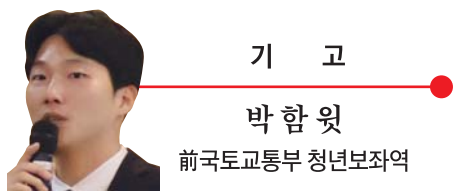
논산 생딸기주스⁺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상식의 폐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기고

박 함 윷

前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의 가치는 알지만 가치는 모르는 자를 냉소자(Cynic)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공한 냉소자들’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효율이라는 계산기 속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며,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궤적이자 생존을 위한 사투인 것들이, 성공한 냉소자들의 손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시즌제 소품으로 전락한다.

타인의 시린 상처는 SNS상의 유희를 위한 가성비 좋은 코스튬이 되고, 수십 년을 지켜온 정치적 정체성은 권력의 요직과 맞바꿀 수 있는 매물이 된다. 오만이 위트로 포장되고 변질이 전락이 되는 이 뒤틀린 성공 공식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신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디지털 공간의 ‘가난 밈(Meme)’은 결핍으로부터 격리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비정한 가면무도화다. 풍요 위에서 가난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그것을 실제 생존으로 겪는 이들과의 철저한 비대칭성 위에서 작동한다.

유머라는 그늘 아래 숨어 타인의 실존적 아픔을 우월감의 배경지로 삼는 행태는 대중에게 깊은 모멸감을 남긴다. 가난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실체를 짚어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되고,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면역력만이 성공의 증거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보 역시 정치를 가치 구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위한 비즈니스로 정의한다. 대중은 이 두 현상을 목격하며 내가 버텨나가야 하는 시린 현실과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앞선 자들에게는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소품이나 거래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결국 타인의 존엄이나 공적 가치를 도구화해도 성취만 거두면 용인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파산한다. 정당한 대가와 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성공이 유능함으로 둔갑하여

남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청년 세대가 이 풍경으로부터 공통된 ‘나쁜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SNS 속 재력가의 안하무인을 보며 타인의 아픔을 유머로 치환하는 법을 목격하고, 뉴스 속 지도층의 변질을 보며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 오독하게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을 때,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커리어 지상주의를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된다.

이러한 행태들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사회의 상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공적 메시지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존엄과 공적 가치를 할값에 팔아치우는 냉소자들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상식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사회적 기준이다.

/前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선거에 막힌 ‘연금개혁’



기자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연금개혁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당시 연금개혁의 지속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이복이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쏠려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도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이 ‘표가 되지 않는다’라며 관련 논의를 미루는 동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은 작년 3월 보험료를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성사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

이란 지적이 있었던 만큼, 여·야는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된 ‘연금특위’를 출범해 연금개혁 지속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조기 대선과 내란사태 재판 등 정치권 주요 이슈에 밀려 뒷전이 됐고, 연내 추가 연금개혁을 약속했던 연금특위는 작년 9월에 이르러서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을 뿐이다. 이어 연금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기한 종료료 앞두고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미뤘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미룬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표’가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다. 기성 세대의 부양을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거나,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 상대방 진영이 이를 정치적 공세에 활용할 여지도 있

는 만큼, 여·야 모두 연금개혁을 연금조차 않고 있다.

반면, 표가 될 법한 공약에는 여·야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한 ‘원화스테이بل코인’ 과제가 그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정부안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여·야는 이와 관련한 입법을 쏟아내며 안건 끌어오기에 힘쓰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마련이 정체된다면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 과제로 ‘지나해 연금개혁에서 설정한 주요 개혁의 완수’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부족한 목표다. 국회 참여 없이 독자적인 정부안 마련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월 20일 (음 12월 2일)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존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면 앞이 보일 듯. 48년생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 변질을 손가락질하지 말 것. 60년생 손톱이 너무 길어서 업무능력 저하되지는 않는지. 72년생 조지일관으로 분산투자. 84년생 취업에 충실.



37년생 일해서 아픈 것이 아니니 피부리지 말 것. 49년생 신용이 최우선. 61년생 집을 사도 무난하니 오늘부터 차근히 계획을 세워라. 73년생 친구 간에 과민반응 보이다가 기회 놓친다. 85년생 스트레스 보이지 말고 명상하라.



38년생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50년생 정신병원에서 최후를 맞이 않도록. 62년생 승진 뒤에는 할 일도 많으니 부지런 하자. 74년생 수동적인 자세는 답답하겠으나 능력이 부족하다. 86년생 용이 여의주를 물었으나 물이 부족하다.



39년생 조안을 하면 복복의 칼을 가는 사람이 있으니 조안은 금물. 5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사는 무난하다. 63년생 연인 간에 다툼이 일어 오늘은 헤어질 수 있다. 75년생 이혼은 정말 신중하. 87년생 낚시 가서 미끄럼 주의.



40년생 남의 실패를 보면서 비웃지 마라. 52년생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64년생 세 사람이 있으면 그중 내 스승이 있다. 76년생 키우는 닭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기쁘다. 88년생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



41년생 화가 복이 되니 양보를. 53년생 주말에는 경마장보다는 주말농장을 해보라. 65년생 건널목 지날 때 제발 핸드폰은 쳐다보지 않도록. 77년생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89년생 책에서만 배우는 것만은 아니니 사색해보라.



42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54년생 친절 하려던 것이 참견이 되어 곤란해지는 날. 66년생 인생은 쉽지가 않으니 공부하라. 78년생 가족의 정에 흐르다가 지출로 돈 탕진한다. 90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니 돈을 사랑하라.



43년생 아침부터 영업이 잘된다. 55년생 사망감으로 출근하라. 67년생 경쟁자가 많으나 실적이 좋아 든든하다. 79년생 양보하고 남의 말 전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듯. 91년생 예부터 칭찬은 마법의 지팡이라 했으나 칭찬을 남발하지는 말 것.



44년생 저택에 소득이 높아진다. 56년생 피를 부리면 모가 나고 정에 흐르면 떠나려고 간다. 68년생 고집이 웅창함으로 변한다. 80년생 동업자에게 정확한 계산으로 나누어야. 92년생 가족에게 보충 부탁은 미덕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45년생 점심때 소지품 분실 유의. 57년생 형제에게 비난하지 말 것. 69년생 작은 실력을 너무 과시하지 않도록. 81년생 통찰력이 있으면 죽음도 피해간다 했으니 임기응변보다는. 93년생 화재의 조심성은 나와 주변 이웃 서로를 위한 것.



46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얻는다. 58년생 대인관계에서 서두르지 마라. 70년생 문서정리를 깨끗이 하여 바쁘지 않게 하자. 82년생 부동산 투자는 발로 현장에 가서 부딪쳐보고 하는 것이. 94년생 평소애 배운 덕을 되받게 되는 하루.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과도한 지출을 낳는다. 59년생 연인관계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야 무난. 71년생 이웃사촌 간에 다툼 예상. 83년생 부모님 산소 정비를 계획하여 볼 것. 95년생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개인 전화가 그리 많은가를 반성하라.



김상회의四季

방생 ①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필자의 월광사 신도분들께 방생을 권한다. 방생의 공덕에 관해서도 여러 번 글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원하는 원하지 않은 알게 모르게 짓는 살생업이 만만치 않다. 백발참회문에 보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시켜 한 불선한 일도 참회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 어부들이 왜 생선을 잡고 도축장에서는 왜 소와 돼지를 잡겠는가?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양적 측면이나 더 나은 맛의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다. 살생의 반대가 방생이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에 고금의 여러 경전에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고 불교는 ‘방생’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할 수 없이 지은 불 선한 일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방생은 적지 않은 공덕을 만나게 해준다.

방생하면 대부분 사람은 물고기 방생을 떠올리지만 사실 방생의 대상이 반드시 물고기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식탁에 흔하게 올라오는 식자재로서 생선과 같은 민물고기나 바다 생선을 많이 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방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방생뿐만 아니라 텃에 걸린 동물들을 풀어 주거나 다친 데를 고쳐주는 일, 먹을 것을 주는 일도 모두 방생에 버금가는 일이다. 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먹힐 처지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까지 조복 받는 일이기도 그 공덕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단명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 방생은 매우 필요고 우선으로 해야 할 노력이 된다. 여러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방생의 공덕 중에 항상 나오는 것은 큰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여기에 더하여 싸움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산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6
							3	
7		3	4					
						6		4
	3						5	
4		2						
					1	2		9
		1						
3			5	6				

			7				4	
						2		8
		9					6	
9	2							7
3								5
7							8	9
5						7		
2		1						
	9			3				

신림7구역 찾은 오세훈 “정책 재점검 요청” 사업추진 의지

〈서울시장〉

서울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배로 공공 기여율 10%서 3%로 하향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일괄 지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7재개발 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재개발 구역을 찾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인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방치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했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노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장 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린다.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 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 부담이 완화된다.

주민들이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괄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학교 ‘반복적 행정업무’ 줄인다 “건강·체력측정·식사 인증하면 포인트”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교육지원청으로 공통된 업무 이관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가이드가 담겼다.

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지원에 대한 요청과 협조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통합지원과에서는 채용 공고, 원서 접수, 서류심사, 계약 지원, 일정조율 등 실무 전반을 수행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

학교인력관리,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학교행정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교

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소방합동훈련 지원 ▲교과서 수업 관리 및 배부 등이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 가이드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서울교육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전기·수소차 구매에 6928억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기도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규모인 5687억원 대비 22% 증가한 금액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차종별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830만원, 승합차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 최대 183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수소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버스. /경기도

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72% 증가한 53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 기준 3만 9736대로, 2024년 대비 3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소차 보급 역시 수소 승용차 신모델 출시와 버스 차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광명·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경기도, 상·하수도 개선에 6747억

경기도는 수도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총 6747억원으로, 지난해 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23억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서울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운영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 활력거점 방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형 건강 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로 인증 시 기본 포인트 합산 최대 9000P, 5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 포인트 1000P가 제공돼 최대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시는 손목닥터9988의 기존 일일 걷기 미션을 운영한다. 이는 평소 실천하던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걷기를 주 5회(주말 1일 포함) 달성하면 챌린지 성공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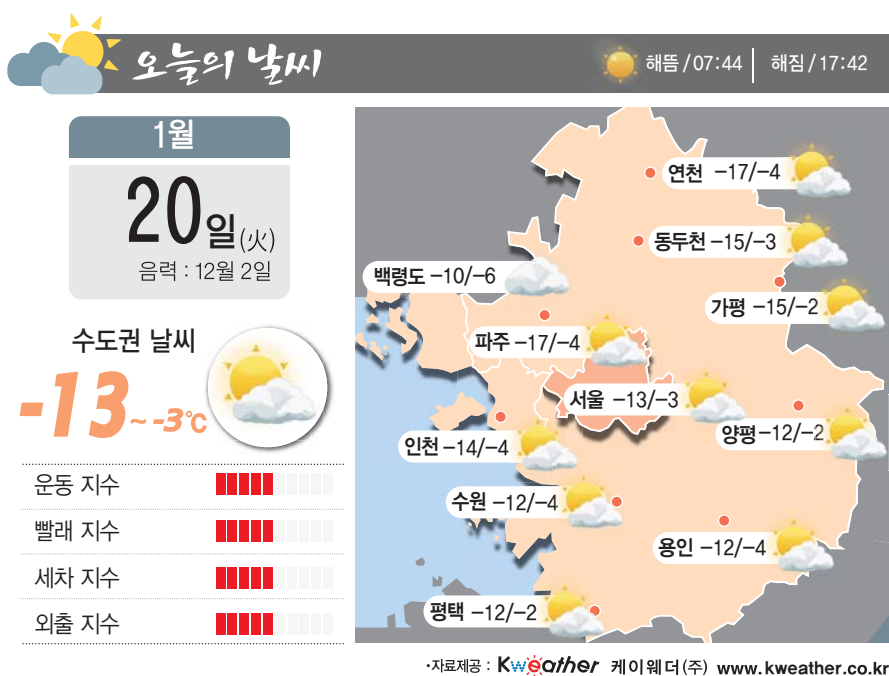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미션도 포함됐다.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예약한 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을 측정하고 손목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최대 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체력측정 미션은 측정 방식에 따라 ‘인증형’과 ‘체합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증형은 공식 인증서(1~6등급)가 발급되며, 완료 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체합형은 공식 인증의 부담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며 완료 시 1000포인트가 지급된다.

혈당 관리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잡곡밥 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쾌한 한끼’ 인증 미션도 진행한다. 서울시 내 잡곡밥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이용한 후 식사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2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번 챌린지는 예산 소진 시까지 손목닥터9988 앱 이용자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시위로 수천 명 사망, 책임은 트럼프에 있어”
▲다카이치 日 총리 조기 총선 강행 전망에…여론 50%는 내각 해산 반대 /사진 뉴시스

▲中, 작년 경제성장률 연 5.0% 목표 달성…내수 침체 속 4분기는 4.5% 그쳐
▲독일, ‘징병 신체조사 설문’ 반발 확산…신규 입대 부족에 軍 고령화 가속

▲스페인 안달루시아서 고속열차 연쇄 추돌… 최소 21명 사망·100여 명 부상
▲스콧 베슨트 미 재무장관 “대법원, 관세 정책 뒤집을 가능성 낮다” 주장



유통업계
초저가·균일가로
가격경쟁
L1

metro®

Life

SK바사
글로벌 CDMO
백신개발 '투트랙'
L2



친환경에 투자하고, 창작무대 넓혀… 소비로 쌓아올린 책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카드

현대자동차그룹 자회사인 현대카드가 자동차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한다'는 미션 아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현대카드는 ESG 채권 발행과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양 축으로 지속가능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2030년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금융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차별화된 문화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 ESG 채권 누적 발행 3조원

현대카드는 최근 7년간 총 3조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먼저, 현대카드는 지난 2019년 8월 카드업계 최초로 2400억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현대카드가 친환경 사업 분야에 투자할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ESG 채권 발행… 7년간 총 3조 규모
사후보고서 공개해 채권 투명성 강화
친환경차 보급 목표 맞춰 금융 지원
특화카드로 구매시 할인·적립 혜택

채권 발행 규모도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 2019년 24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2023년 2500억원, 2024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7100억 규모의 채권을 시장에 내놨다. 지난해에는 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속가능채권을 각각 5000억원, 800억원씩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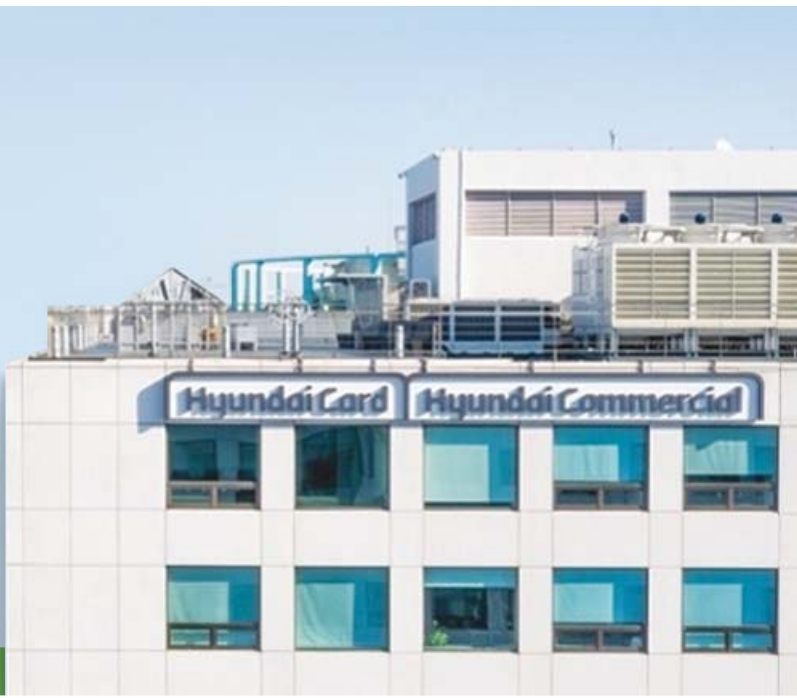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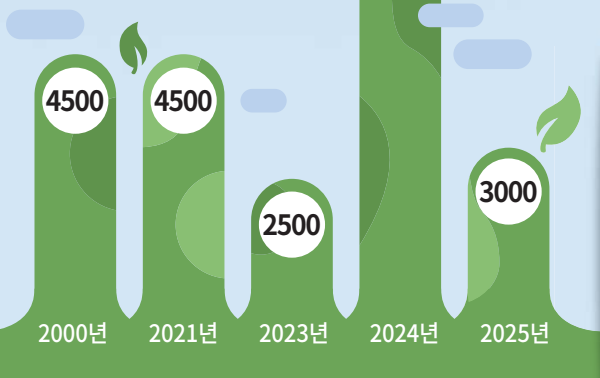


▲현대카드 서울 여의도 본사에 설치된 '현대카드 MoMA 디지털 월'을 통해 뉴욕 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김아영 작가의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2024)' 작품 관련 이미지. /현대카드

현대카드 녹색채권 발행규모

단위: 억원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사업 분야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분야에 함께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9일 "친환경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녹색채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며 "추가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을 막기 위해 공식 사이트에서 사후보고서도 충실히 오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친환경 차 특화카드 강화

현대카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특화 신용카드 상품 혜택도 강화했다.

'현대(Hyundai) EV카드'가 대표적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수소차 전용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 카드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수소전기차 '디올 뉴 넥소(이하 넥소)' 구매 고객은 결제 금액의 1.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 받거나 1.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넥소 구매 시 현대 EV카드로 1000만원 이상 결제하고, 선할인 후 포인트

20여년 간 뉴욕현대미술관 후원
미술사 연구, 행사 등 다양한 협업
국내 예술계 작가 글로벌 진출 도와
김아영 작가 첫 미국 개인전 후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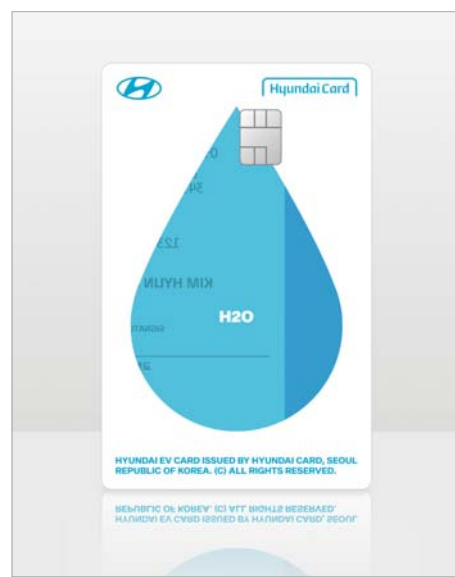
상환 프로그램인 '블루 세이프-오토'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즉시 할인 혜택과 캐시백 22만원이 제공되며, 차량 가격의 0.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 EV카드는 주차·세차·하이패스 등 차량 유지관리 업종 이용 시 최대 3%, 대중교통·쏘카·타다 등 모빌리티 영역 이용 시 최대 2%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각 혜택의 적립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 문화 예술 저변 확대

현대카드는 뉴욕현대미술관(MoMA)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은 지난 20여 년간 전시 후원과 개최는 물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현대 EV카드.

특히, 현대카드는 뉴욕현대미술관의 주요 전시를 50여 차례 단독 후원했으며, 미술사 연구와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한국 예술계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 작가의 미국 첫 개인전을 후원했다. 김아영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미디어 설치·사운드·퍼포먼스·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가항력에 저항하거나 그로부터 빛나는 존재들에 대해 작업해 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비디오 게임 엔진, 실사촬영 등을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디지털 미디어 예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인 김 작가의 이번 MoMA 전시가 성사되는 데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의 오랜 협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대카드는 앞으로도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닌,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국내 작가와 큐레이터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아시안컵 U-23 대표팀, 호주 상대로 2-1 승리…20일 한일전 4강 격돌 /사진 뉴시스
▲김하성 손가락 수술로 최대 5개월 결장 전망…WBC 출전 불가 판정

▲세네갈, 모로코 1-0 꺾고 네이션스컵 우승…심판 편파 판정 논란도
▲남자 골프 김시우, PGA 개막전 '톱10' 좌절…정상 탈환 다음 기회로

▲프로야구 삼성, 선발투수진 논의 막바지…이승현·양창성 등 주요 후보
▲여자배구 흥국생명, 김연경 이탈에도 '4연승'…'리빌딩' 성공적 평가